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4일)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조계사 시월국화 향기, 서울을 채우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피워낸 국화 향기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0월 10일 제13회 국화향기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을 갖고 가을 정취를 만끽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국화축제는 국적, 연령, 종교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글 · 사진=김내영 기자

10월 전국은 '불교문화'로 물든다

조계종, '2023 불교문화대전' 개최
10월 18~31일 '불교문화주간' 지정
명상 · 불교예술 접목 강연, 콘서트
첫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 눈길
전국 사찰서도 문화예술행사 이어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완연한 가을인 10월, 불교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대전'이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는 10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교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과 행복을 찾는 불교계 가을축제인 '2023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교문화대전'은 10월에 많이 열리는 전국 각지의 불교문화행사를 문화주간에 집중해 불자와 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장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제32회 불교미술대전을 비롯해 30여 개의 문화행사들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종책사업인 명상과 불교예술을 접목한 문화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청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된 점도 눈길을 끈다.

'청춘토크파티'를 통해서는 △'홍대선원'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10월 21일 오후 6시, 홍대선원) △'사찰음식체험'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10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사찰음식문화체험관)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문화콘서트(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더 룸 탁트인)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무여 스님 북콘서트(10월 30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대학생 청년 불자와 함께하는 원제 스님 북콘서트(10월 31일 오후 6시, 강원대) 등 청년 불자를 대상으로 한 명상, 사찰음식 등 다양한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기획 공연을 통해서는 명상과 불교문화예술이 접목된 강연과 콘서트가 이어진다. 10월 19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초청 명상 강연을 시작으로 △명상음악콘서트(10월 24일 오후 7시, 조계사) △명상무용콘서트(10월 25일 오후 6시, 조계사) △불교예술 공연콘서트(10월 26일 오후 7시)가 열린다.

이와함께 전국 사찰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제를 불교문화대전 기간에 집중시켜 불교문화축제가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는 청소년 포교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준비된 행사다. 유명연예기획사가 함께 참여해 미래의 K-팝 스타를 발굴하는 행사로 전국 예선을 거쳐 10월 22일 대회에는 본선이 진행된다.

주요 사찰 불교문화예술제 행사로는 △성주 심원사 '제11회 가야산 산신대제'(10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금선사 '산사의 울림'(10월 21일 오후 2시) △평택 동녕사 '2023 이웃 종교인,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한미화합한마당'(10월 21일 오후 2시)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산사음악회'(10월 21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 △경주 골굴사 '제19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및 산사예술제'(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삼천사 '꽃장엄 불교문화축제-모두의 추스림'(10월 26일~11월 1일) △의정부 성불사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 작은 음악회'(10월 28일 오후 2시) △광주 증심사 '무등산 가을 산사음악회'(10월 28일 오후 3시) 등이 진행된다.

'2023 불교문화대전'은 10월 18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불교문화대전 기간 중 함께 진행되는 제3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불교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 3층에서 전시된다.

폐막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며,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작과 홍보에 애쓴 예술인들과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제10회 신작찬불가 공모상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불교문화대전은 시행 초기 2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다가 지난해부터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앞선 행사들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기획 · 준비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특히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명상과 불교예술의 결합과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들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들을 10월 동안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적멸로 나아가다

10월 8일 선암사서 영결 · 다비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해 애도
9일 습골과정서 사리 22과 수습
오는 11월 9일 선암사서 49재

뛰어난 수행력으로 태고종을 이끌었던 前 종정 지허당 지용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이 엄수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0월 8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무량수전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영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원로의장 도광 스님,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종회의장 법담 스님, 前 총무원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소병철 · 이현승 · 서동용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임권택 영화감독 등 다양한 종교계, 정관계, 문화계 인사들과 신도들이 참여해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제 종단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더더욱 큰스님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데 다시는 그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슬픔이 가득하다"며 "가시는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실 것을 믿으며 삼가 큰스님의 각령 앞에 일향구를 올린다"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도 "조계의 하늘에 청운이 빗겨있고 초목은 아직도 푸른데, 유유자적하면서 낫과 괭이 벗삼던 납자가 홀연히 가셨다"고 추모하며 "세상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짐이라는데 언제 또다른 세상의 회상에서 만날 것입니까. 그때도 소중한 인연을 흘려버려 소식을 듣지 못할까 두렵다"고 추도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종단협의회장 진우스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등이 조사를 통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지허 대종사 문도회장 승원 스님과 문도들은 참석 대중에게 인사말을 통해 "참여해주신 대덕 큰스님과 여러 귀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희 문도들은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과 수행으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다"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영결식에 이어 대종사의 법구는 장엄번과 광주영산재 스님들의 범패를 선두로 평소 기도정진을 해온 대웅전을 지나 부도밭과 승선교, 다비장에 이르렀다.

임시로 마련된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이내 연화대에 이운 · 안치됐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지허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장 세계로 나아갔다.

한편, 지허 대종사의 법체에서 사리 22과가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허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는 "10월 8일 지허 대종사의 다비식 이후 10월 9일 오후 습골 과정을 거친 결과 총 22과의 사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지낸 지허 대종사는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지허 대종사의 49재는 10월 8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초재를 시작으로 2재는 10월 15일 순천 금둔사에서 열렸으며, 3재는 10월 22일 울진 옥정사, 4재는 10월 29일 벌교 용연사, 5재는 11월 5일 고흥 용흥사, 6재는 11월 12일 경기도 광주 자은정사, 막재는 11월 19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은 10월 8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일원에서 지허 대종사 영결 · 다비식을 봉행했다.



“모든 날 좋았다”…잼버리 대원 울린 천태종

일본 스카우트연맹 단원들
구인사에 한국어 편지 보내

14명 함께 쓴 편지 구인사에
친절 · 음식 · 숙소 등 호평 담아
서툴지만 한글 또박또박 쓰며
“구인사에 인사하러 갈 생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다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조기 퇴영한 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3박4일을 보낸 일본스카우트 단원들. 당시 갑작스런 숙소 제공 요청에도 16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을 흔쾌히 끌어안은 구인사에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의 감사인사가 폐막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감동을 자아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구인사에 머물렀던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이 한글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10월 7일 밝혔다. ‘구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대형편지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그려넣어 잼버리 기간 양국의 교류가 얼마나 뜻 깊었는지를 표현했다.

“세계 점보리(잼버리) 때는 가파른(급박한) 예정(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한 대(환대)해 주셔서 감시(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사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리고 한층 더 수행에 몸을 둘 것(매진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로시(Hiroshi)

이 편지에 감사의 글을 쓴 단원들은 총 14명. 인터넷 번역기를 활용한 것처럼 문장은 매끄럽지 않고 오타도 있지만 천태종과 구인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자필로 온전하게 담았다. 단원들은 구인사에서 느낀 사부대중의 친절함, 정갈한 음식, 잘 정리된 숙소, 영산재 시연 등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편지에 구체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구인사 전경을 비롯해 3박4일간의 체험사진도 넣었다. 특히 쿠도 스미코(澄子 工藤) 단원은 “다시 한국에 가면 (구인사에) 인사드리러 갈 생각”이라고 전해 감동을 더했다.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이 손글씨로 써 보낸 감사편지. 양국 국기와 직접 쓴 한글이 인상적이다.

천태종과 구인사에 대한 일본스카우트의 감사인사는 잼버리가 끝난 8월부터 계속돼왔다. 가장 먼저 코우야 니시무라 군은 8월 말 구인사에 영문으로 쓴 편지를 보내 “구인사 사부대중은 우리에게 숙소와 식사, 간식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줬다. 여러분의 모습은 부처님과 같이 친절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불교 신자임에도 다른 나라 잼버리 대원들처럼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하고 산에 갇혔다고 불평했다. 바보 같은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반성의 뜻도 전했다.

며칠 뒤에는 일본스카우트 단원의 어머니라고 밝힌 스노츠카 유이코 씨의 한글 손편지가 구인사와 단양군에 전해졌다. 스노츠카 씨는 또박또박 한글로 쓴 손편지에서 “구인사 여러분은 물론 이웃분들도 많은 과일과 옥수수 등을 주셨다고 들었다. 언젠가 딸과 단양을 관광하고 싶다”며 단양군과 구인사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 같은 스카우트 단원과 모친의 편지에 이어 일본스카우트 잼버리연맹도 9월 초 구인사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며 천태종의 배려는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데타 유키노리 파견대장 겸 전무이사와 요리마사 마츠다이라 대표단 부국장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에게 “다양한 지원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환대에 감사드린다. 한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스카우트연맹은 9월 19일 구인사를 방문해 덕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데타 유키노리 연맹 대표는 이날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구인사에 방문한 단원들이 훗날 성인이 돼 자신의 아이들과 이곳을 다시 방문해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덕수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인사에 머무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 다행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긴 인연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천태종은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일본 단원 1600명을 구인사로 맞아 3박4일간 광명전 · 판도암 · 설선당 등을 숙소로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조 · 석식도 제공했다. 구인사 방문 기념법회와 더불어 단양군과 공동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은 온달관광지 · 도담삼봉 · 다누리아쿠아리움 ·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단양 일대를 관광한 데 이어 구인사 경내에서 영산재 · 명상체험 · 108배 · 소원지 작성 등 불교문화 활동에도 참여했다.

“불교문화유산 인식 전환 노력을”

진우 스님, 10월 12일 유인촌 장관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찰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조계종을 예방한 유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사진> 먼저 취임 축하인사를 건넨 진우 스님은 “장관께서 누구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넓으신 것으로 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보전비용을 100% 부담하는 궁 · 능 대비 홀대받는 사찰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스님은 “우리 문화재 60% 이상이 불교문화재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종교를 떠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과거 장관 재임 때도 공무원이 직접 사찰에 찾아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어려워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늘 얘기했다”며 “말씀하신 부분들이 업무에 해당하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덕림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임명
포교연구실장엔 문종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신임 부 · 실 · 국장 스님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불학연구소장을 지낸 덕림 스님이 임명됐다. 또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는 법정 스님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10월 10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에 덕림 스님을, 불학연구소장에 법정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범해 스님은 국장단 등 교역직에 대한 인사도 단행해 연수국장에 선호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일오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같은 날 포교국장을 맡고 있던 문종 스님을 신임 포교연구실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포교국장엔 선보 스님, 신도국장엔 자경 스님이 임명됐다. 김내영 기자

일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 유보

직할·봉선사·직능 단독후보 통과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해인사교구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가 유보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는 10월 12일 실시한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 회의에서 단독 후보인 직할교구 본오 스님, 봉선사 법륜 스님, 직능대표 행정분야 탄공 스님과 복수로 등록한 해인사 후보 가운데 향록 스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직할교구에 입후보한 남전 스님은 사퇴했다.

반면 해인사 선원수좌인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는 유보됐다. 2019년 동안거와 2020년 하안거 · 동안거 대중결계록에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한주 등을 맡아 정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등기부상으로는 일광 스님이 미등록사설사암 운영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인사 교구선관위는 “실질적 사찰운영권자로 판단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를 유보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결의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국립극장에서 펼쳐진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교성곡.

회당 대종사, 음악으로 만나다

진각종, ‘회당–불법은 체요…’ 음악회 성료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창작 국악교성곡 ‘회당’이 20여 년만에 서울 국립극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라 진언행자와 일반대중들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켰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0월 11일 국립국장 해오름에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교성곡 회당-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작사 장용철 · 작곡 김회경)’를 개최했다.

교성곡 회당은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의 드라마틱한 삶을 음악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총 4악장 16곡 90여 분의 길이로 구성된 칸타타 형식의 국악 대곡이다. 작품에는 해방과 6.25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혼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한 회당 대종사의 치열하면서도 애절한 삶의 여정과 뜨거운 구도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신중일 기자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3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3.9.25 - 11.17

공모부분
1. 템플스테이
2.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또는 사찰음식에 관한 자유주제)

응모자격
- 일반인,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연구자(내국민, 외국인 포함)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최대 4인)

응모일정
- 논문 접수 마감 : 11월 17일(금)
- 본선 수상자 발표 : 11월 24일(금)
- 논문 발표 및 시상 : 12월 1일(금)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안내 및 논문 양식 다운로드 (한국관광학회 및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지사항)
- 논문 제출 : 이메일(tosokjo@gmail.com) 접수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상내역

구 분	주체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총 8 팀				1,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문의사항
- 논문 관련 문의 : 조미나 대학(원)생 위원장 (수원대 교수) tosokjo@gmail.com
- 행정 관련 문의 : (사)한국관광학회 사무국 tosok.hfm@gmail.com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첫결실'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통도사서 첫 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기 동아리 회원 64명 가입해
지도법사 덕현 스님 직접 안내
불자교수 · 학생들과 적극 소통
매월 정기법회 · 템플스테이 계획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의 첫 결실인 영산대 불교동아리. 총 64명의 회원이 가입해 10월 7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첫 결실이 탄생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새 출발을 알린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7일 문수법당에서 '영산대학교 불교동아리 1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전법활동과 통도사 전법위원회, 양산불교사암연합회 지원 등 지역적인 관심이 이뤄낸 성과다. 영산대 불교동아리 회원으로는 64명이 등록했으며, 지난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 위촉 3개월 만에 이룬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꾸준한 전법 원력이 눈길을 끈다. 덕현 스님은 대학생 전법위원 위촉 후 일주일 뒤 웅상출장소를 방문해 영산대 불자 교수 면담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동성 영산대 교수와의 차담 후 불교동아리 창립안을 마련하고 학생들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9월 개강 후 덕현 스님은 영산대 교내에 불교동아리 모집 현수막과 전단지를 부착하며 홍보를 시작했다. 또 스님의 사찰 '웅장원'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미디어 홍보도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간식을 챙겨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불교동아리를 안내하면서 가입 신청도 받았다.

이동성 영산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권승열 교수 등 불자 교수들의 도움도 한몫했으며, 양산불교사암연합회가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심도 쏟아졌다. 지속적인 전법 결과 총 6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도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창립법회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격려하며 전법활동을 이어 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그동안 통도사는 청년들이 사찰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며 "젊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전법의 큰 원력을 실천한 결과를 오늘 마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현 스님과 영산대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불교 가르침을 만나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통도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통도사는 동아리 발전기금 500만원과 종정 성파 대종사의 선물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법회 이후 학생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고 경내 곳곳을 돌아보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시명(물리치료학과1) 학생은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명상과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삶에 적용하고 싶다. 오늘처럼 통도사를 방문하고 도반들과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법회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법회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춰 차담 및 명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부산과 울산, 양산 등 타대학 불교동아리와 교류하고 연합으로 템플스테이, 연등회, 산사방문, 봉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삶, 붓다의 삶을 모델로"

불교환경연대 22주년 녹색대담

법륜 스님 환경 즉문즉설 나서
개인 실천과 지속적 교육 강조


불교환경연대 창립 22주년을 맞아 마련된 법륜 스님의 녹색대담.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다면 붓다의 삶을 모델로 검소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10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공연장에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법륜 스님과 대담한 녹색대담'이 열렸다. 대담에는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이 참석해 환경보살이 되기 위한 지혜를 나눴다. 법륜 스님의 명쾌한 답변에 객석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많았다.

녹색대담은 사회자 남진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위원장)의 질문에 법륜 스님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환경운동에 있어 생활실천을 강조한 이유"를 묻자 법륜 스님은 "인간이 소비를 줄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부처님이 그랬다. 왕자로 태어나 풍요롭게 생활하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고 타인들의 모범이 됐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다면 물질적 풍요 없이 행복할 수 있었던 부처님의 삶을 표방해야 한다. 실천 없이는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교수가 "일부에서는 개인의 실천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하자 법륜 스님은 "탄소제로 등의 정책적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며 "안 될 것이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다. 확률은 적지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담에 이어 진행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서는 관객들이 평소 궁금했던 환경 문제들이 쏟아졌다. 법륜 스님은 하나씩 짚어가며 이치가 담긴 해법을 풀어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법륜 스님은 "엄마가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진실을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양말은 마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양말이 나에게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마음에 와 닿는 감사함을 배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식을 끊기 어렵다.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채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법륜 스님은 "육식을 안 하는데 사회생활이 왜 어렵냐"고 반문하며 "극단적으로 육식을 안 먹겠다 보다는 가능하면 적게 먹겠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얼마든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WISE캠 총장 선출 '본격화'

10월 12일 총추위원 위촉…위원장 범해 스님

1차 회의서 선거 일정 확정
11월 7일 최종 후보자 선발
동국대 이사회서 최종 선정

동국대 WISE캠퍼스의 차기 총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0월 12일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선출을 위한 WISE총추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조계종 △사회인사 △동문 △교원 △직원 △학부학생 등 각 단위에서 추천된 대표자들을 WISE캠퍼스 총추위원으로 위촉하고,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WISE총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계종 대표위원 4인(범해 · 성화 · 우봉 · 설도 스님)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김영일 · 임명배 · 백승권) △동문 대표위원 1명(조덕형) △교원 대표위원 8명(김영진 · 유주한 · 심재명 · 김성환 · 안영규 · 이미애 · 이승덕 · 문일수) △직원 대표위원 3인(강동식 · 이용수 · 이상목) △학부학생 대표위원 1명(유정호)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WISE캠퍼스 총추위원장 범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립대학인 동국대 WISE캠퍼스에 대해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좋은 분을 총장으로 추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1차 회의를 통해 WISE캠퍼스 총추위는 WISE캠퍼스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3~20일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9~20일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0월 24일 열리는 총추위 2차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 및 소견발표 방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월 6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11월 7일에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동국대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10 · 27법난, 잠재된 트라우마 치유해야"

조계종 · 10 · 27법난 피해 모임

'명예회복 · 치유' 학술세미나
일면스님, 흥국사 '용상방' 공개

"10 · 27법난은 많은 불자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와 같이 집단적 트라우마로 잠재해 있다. 내면에 잠재된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과 10 · 27법난 피해자 모임이 주최한 '10 · 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 학술세미나' 발제를 맡아 법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10 · 27법난은 사찰, 종단, 불자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법난 발생 40여 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적절히 치유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한국불교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각인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시 법난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벌어진 삼무일종의 법난은 사건 발생 1천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되며 불교계의 수치스러운 피해로 기억된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정부는 물론,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 27법난을 트라우마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유 방법의 일환으로 사진, 염불, 법고, 음악, 걷기, 소통과 공감, 음식 등을 활용한 문화치유명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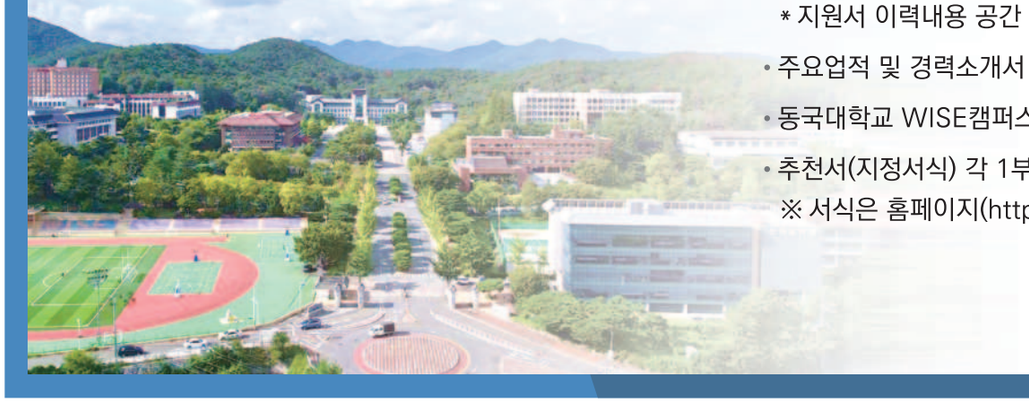
김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명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들을 소멸하고 안정과 행복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일면 스님은 1980년 10 · 27법난 당시 신군부가 남양주 흥국사에 개설했던 동안거 정진 대중의 소임을 기록한 '용상방'을 최초 공개했다. 법난 당시 신군부는 무고한 스님 30여 명을 남양주 흥국사로 끌고 가 강제 기도, 참선 등 집체교육을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용상방에서는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과 월탄 스님, 향봉 스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초빙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를 명문 사학으로 이끌어주실 WISE캠퍼스총장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망이 있는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WISE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현직 WISE부총장으로서 교·직원(WISE캠퍼스 전임교원 및 WISE캠퍼스 정규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 중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 WISE부총장의 자질을 갖춘 교외 인사로 교·직원(WISE캠퍼스 전임교원 및 WISE캠퍼스 정규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 중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 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각 1부
  ※ 서식은 홈페이지(http://wise.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3.10.19.(목)~10.20.(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4층
법인사무처

기타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WISE부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홈페이지 (http://wise.dongguk.ac.kr)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 8826 (FAX) 02-2260-8973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가을 문턱서 만난 '사찰음식 진수'

봉녕사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
10월 6~7일, '생명 살리는 음식'
경연회 · 전시 · 명상 등 프로그램
"자연 · 조화" 의미 두부 만들기도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원 봉녕사가 10월 6~7일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하고 우주 생명을 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보다 플레이팅 수준이 높아졌네요. 아름답습니다. 맛뿐 아니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심사위원 대우 스님)

"사찰음식 본연의 정갈함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심사위원 성견 스님)

사찰음식 경연대회가 열린 수원 봉녕사 육화당. '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 진다' '제철 채소들과 꽃들에서 오방색을 발견하다' '도란도란 함께하는 가을'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각양각색의 사찰음식이 심사대에 올랐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들의 눈빛엔 설렘과 진지함이 감돌았다.

사찰음식으로 불교의 맛과 멋을 알려온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10월 6일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의 막을 올렸다. '우주 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현시대 화두인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찰음식의 친환경적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경내 곳곳에서는 전시 · 명상 ·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선선한 가을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축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로 시작됐다. 심사위원은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명예교수 대우 스님, 율주 적연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 · 성견 스님이 맡아 음식의 맛, 재료 선택, 완성도 등 꼼꼼히 살폈다. 심사를 마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은사 묘엄 스님의 유지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삼았다"며 "대회를 계기로 사찰음식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자연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품작들과 함께 박성희 궁중음식전문가의 '감로도, 불교음식을 그리다'와 동원 스님의 '스님들의 단백질, 콩!', 성견 스님의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성불음식'이 전시돼 볼거리를 더했다.

이어 대적광전 앞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상징하는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가 열렸다. 주지 진상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자 광용 스님,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국산 콩을 맷돌에 넣고 직접 갈아 두부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두부는 모두가 함께 시식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격려 방문한 광용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음식문화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금 공부하는 좋은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경내 도서관 2층에서는 차명상도 진행됐다. 율주 적연 스님의 지도 아래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미세하게 달라지는 차의 색과 향기, 맛에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인 소개로 차명상을 체험한 이상숙(69) 씨는 "요즘 세상이 각박한데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듯하다"며 "사찰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접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경내 금탑 앞에서는 육법공양과 나눔찻자리가, 야외무대에서는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 실습강좌가 진행됐다.

7일에는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수강생들의 졸업식을 시작으로 차명상, 육법공양,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탁발시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조선마술패와 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의 공연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사회복지법인 혜명, 공식 후원회 발족

10월 6일, 민주평통 활동한 김상길 회장 중심



1958년 재단법인으로 문을 열어 1971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해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명이 설립 처음으로 공식 후원회를 발족했다.

사회복지법인 혜명(이사장 태원 · 도선사 주지)은 10월 6일 서울 마벨리에에서 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사진> 후원회장은 얼마 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금천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한 김상길 회장이 맡았다.

이날 혜명 이사장 태원 스님은 "52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혜명은 청담 스님과 제 은사이신 혜성 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자비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며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모두가 조금만 합심하면 새로 시작하는 후원회도 어느 후원회 못지 않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상길 후원회장은 "도선사만의 힘으로 290여 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어려웠을 텐데 후원회가 생겨 다행이다. 종교를 초월해 많은 홍보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사장 태원 스님은 김상길 회장에게 후원회장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산하시설장들은 후원금 200만원을 모아 법인에 기탁했다.

한편 법인에 따르면 산하 21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혜명은 예산과 인력 규모 대비 타 복지법인보다 상당히 적은 연간 1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혜명은 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거쳐 2032년까지 연간 36억 원을 모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

11월 17일까지, 상금 1400만 원
학술적 · 실무적 가치 등 기준 심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이 (사)한국관광학회와 함께 '2023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은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는 템플스테이나 사찰음식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공모 가능하다.

논문은 연구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완결성, 학술적 · 실무적 가치,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 최우수상 2편(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상금 200만 원), 장려상 4편(각 상금 100만 원) 등 총 8편이 선정된다. 선정된 논문에는 상과 함께 총 14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학회(https://www.tosok.org) 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논문 제출은 이메일 (tosokjo@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봉선사 교리경시대회, 내년 봄엔 상월결사 주제로"

10월 9일, 개산 1054주년 행사
주지 호산 스님 대회 확대 강조


10월 9일 봉선사에서 개최된 불교 교리경시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봉선사가 개산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큰말씀 겨루기대회(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열고 있는데 대회 횟수를 늘려 내년 봄엔 상월결사를 주제로 열겠습니다."

10월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불교교리 경시대회의 확대를 약속했다. 봉선사 개산 1054주년 기념 제2회 봉선사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다. 스님은 이날 경내 청풍루에서 진행된 일반부 경시대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호산 스님은 "전날 열린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대회를 보며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다"며 "더 많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봄에 한 차례 더 대회를 만들어 축제의 장을 연 2회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오는 25일 봉행되는 주지 진산식에서 상월결사와 관련된 책을 나눠드리고, 그 책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시대회 확대가 새로운 순례문화 보급에 이어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건 상월결사의 취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호산 스님은 기대했다.

이날 1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일반부 대회는 15개의 OX문제와 패자부활전, 주관식 문제 등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첫 문제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삼보가 불 · 법 · 승이 맞는지 묻는 문제. 첫 문제인 만큼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했지만 1번 참가자 혼자 X를 적으며 예상치 못한 탈락자가 나왔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대회는 고작 7번째 문제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접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출가 청원'인지 묻는 문제. 출가 청원은 마하파자파티가 여성들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여성 출가를 청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사문유관과 헛갈리며 탈락자석으로 이동했다.

대회 시작 10여 분만에 자리를 지킨 참가자가 몇 남지 않자 바로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패자부활전마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선 주지 호산 스님이 상품권을 내걸고 문제를 출제하며 위로했다.

일반부 대회인 만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거듭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은 건 63번 참가자 장성윤 씨였다. 금상 김미향 씨, 은상 고경호 씨, 동상 최창열 씨도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대상을 수상한 장 씨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 대중 모두 감사드린다. 요즘 틈날 때마다 염불을 하는데 운이 작용한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한편 경시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큰법당 앞 특설무대에서 개산 1054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이 거행됐다.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괘불과 불패 이운의식을 비롯해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이 행해졌다. 법요식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와 주지 호산 스님,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교육원장 범해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신앙문화포럼에 공식 초청

싱가포르서 제1회…500명 참가
종교간 대화 · 이해 목표로 소통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신앙문화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 Faith and Culture)에 조계종이 참가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동국대 불교학장 황순일 교수(조계종 국제교류위원)가 공식 초청됐다.

세계신앙문화포럼은 지구촌 위기에 종교적 대안을 찾고자 불교계가 중심이 돼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종교, 신념, 문화간 대화와 이해 촉진을 목표로, 불교뿐 아니라 도교 · 이슬람교 · 힌두교 · 시크교 · 천주교 · 개신교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 첫째 날 '깨어있는 아름다운 별'을 주제로 발표한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다른 생명들과 연기적으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정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계신앙문화포럼이 세계적 위기에 종교적 해결책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모든 참석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DL이앤씨 8번째 희생자…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사노위, 10월 11일 본사 앞
故 강보경 노동자 추모위령재 봉행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법석이 엄수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는 10월 1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故 강보경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故 강보경 씨는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올해 8월 11일 DL이앤씨(전 대림건설)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소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실 창호 유리교체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층 작업이었음에도 현장에는 추락에 대비한 고리 · 안전망 등의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추모위령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죽음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이자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영정사진이 모셔진 영단에 헌화하고 절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의식에 앞서 지몽 스님은 "더 이상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보경 노동자와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노위는 10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 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김내영 기자

보리수아래, 한국 · 몽골 공동시집 발간

6명 시인 작품…한국어 · 몽골어로 80편 수록



장애불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보리수아래가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다섯 번째 '내 심장의 반쪽'을 발간했다.<사진> '내 심장의 반쪽'은 한국과 몽골 중증장애시인들이 문학으로 소통과 교류를 하며 마음을 연 시집으로 한국과 몽골 중증장애시인 6명의 작품 80편이 한국어와 몽골어로 수록됐다.

일상의 삶과 경험을 써내려간 주옥같은 시들에는 자신과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들이 담겼다.

이 책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자 작가로서 작품집을 내고 등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다. 시인들은 장애로 인한 삶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놓지 않고 문화예술의 교류로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한 편, 한 편, 시를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동 시집의 발간은 장애인들의 재능개발 및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아시아 국가 장애인들과 한국장애인들간에 국제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한국장애인들의 활동을 아시아국가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17년에 미얀마, 2018년에는 베트남, 2020년 일본, 2021년 인도네시아 장애시인들과 공동시집을 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장애계에서도 유일한 장애시인 국제 교류라 그 의미가 크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세상은 힘드니까 고통스럽다' 고도 말할 수 있지만, '힘들어도 즐겁다'는 이치를 깨닫는다"면서 "두 나라 시인들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작가로서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10월 18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장애-비장애어울림 콘서트'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년 불교문화대전의 일환으로 열린 콘서트는 한국-몽골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더프라미스, 예천군 수해 지원 마무리

10월 9일까지 5개 지역 대상으로
물품지원 · 심리지원 프로그램 펼쳐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가 10월 9일 올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대한 '재난 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사진>

예천군은 올해 7월 14~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농경지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수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예천군 수한리, 수한리 한티, 벌방리, 진평리 등 5곳을 선정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수한리마을회관 · 수한리한티노인회관 · 벌방리노인회관 등 3곳에서 재난 후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펼쳤다.

특히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아로마스트레스 완화 및 이완 프로그램, 오감자극, 호흡과 이완, 재난 경험 나눔과 성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해지역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도왔다.

수한리마을회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필요한 물품 지원과 함께 60년 만에 처음 겪은 수해로 놀란 마음까지 신경 써 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내영 기자

출혈 멈추지 않는 희귀 질환…작은 상처에 목숨 위태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8. 이달의 환자 – 혈우병 앓는 지성 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모계유전으로 형제 모두 혈우병
시시때때 벌어지는 내외부 출혈
평생 이틀 한 번 혈액응고 주사
정상적 근로 불가능…생계 막막
소외 이웃에 봉사하는 삶 염원



지성 씨는 작은 상처에도 혈액이 멎지 않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지성 씨는 이틀에 한 번 혈액 응고 주사를 맞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출혈을 막기란 쉽지 않다. 출혈 발생 시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거리인 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성 씨(25)는 간혹 지독히 무서운 꿈을 꾼다. 지성 씨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꿈이다. 꿈속에서조차 가슴이 철렁하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성 씨는 초등학생이었던 2005년 혈우병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18년, 지성 씨는 지금도 피와의 사투 중이다.

혈우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혈액 내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다.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은 피를 멈추기 위해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혈액 응고인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피부에 멍이 생기거나 출혈이 계속될 수도 있다. 대부분 일상활동이나 손상으로 인해 쉽게 출혈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내장기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하다.

혈우병일지라도 아주 작은 상처는 혈액이 응고해 출혈이 멎기도 하지만 지성 씨의 경우 혈액 내 적혈구가 매우 부족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어 멈추기가 쉽지 않다. 혹시나 다쳐 피가 나지 않을까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 무리한 활동에서도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앓아온 혈우병으로 일상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성 씨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일상생활 중 조금만 무리하거나 3시간 이상 근로 및 고강도 육체노동을 할 경우 내부 출혈이 발생한다.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만 시시때때 발병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1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때문에 지금껏 퇴직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월수입도 고정적이지 않다. 물류배송과 장애직업재활활동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나가다 보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지성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혈우병이 모계유전이라는 점이다. 지성 씨를 포함해 어머니와 두 명의 형제 모두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 내외부 출혈로 발생할 수 있는 입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성 씨와 가족들은 이틀에 한 번 혈액 응고 주사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혈우병은 실손 보험 보장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성 씨 가정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매우 높다. 한 명당 월 평균 응고주사가 20만 원, 조제비용이 20만 원 가량이며 내부 출혈로 입원 시 평균 80만 원이상 비용이 소모된다. 게다가 지성 씨의 거주지에는 혈우병으로 입원이 불가해, 출혈 발생시 왕복 3시간 거리인 병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다.

완치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맞아야 하는 주사.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불어나는 치료비에 지성 씨와 가족이 짊어지는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지원으로 겨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 미납 치료비만 약 600만 원이다. 지성 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근로활동으로는 점점 불어나는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지성 씨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기간 혈우병을 앓아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희귀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생 자신보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지성 씨. 지성 씨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 환자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에 거주하는 안지성(가명)입니다. 먼저 많은 도움을 주신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회사업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삼형제는 모두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 막내 쌍둥이 동생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우병 때문에 무리가 있는 신체활동을 하면 내부 출혈이 생겨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보니 따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다쳐 큰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도움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평생 혈액응고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혹 이번처럼 다쳤을 때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번 후원금은 앞으로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생활하며 저 또한 남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후 원 안 내

정기후원 신청 | 02-734-8059
환자치료비 후원계좌 |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간편한 ARS | 060-703-1133(한 통화 5000원)

생명나눔은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소식지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치료비 200만 원

10월 5일, 종인 스님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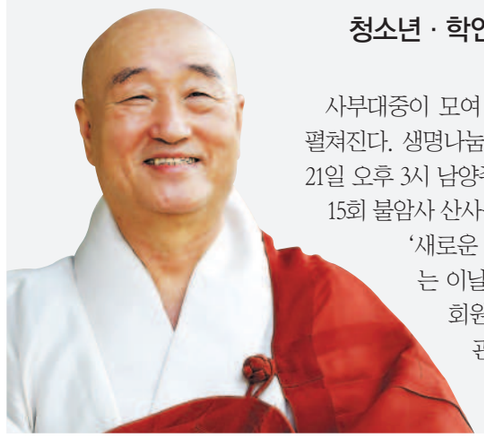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5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환자 치료비지원 전달식을 갖고 뇌출혈을 앓고 있는 조동찬(가명 · 남 · 54세) 씨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종인 스님이 조동찬 환자를 대신해 참석한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했다.〈사진〉

10월 치료비 지원에 선정된 조동찬 환자는 사업 부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발생했고, 300만 원의 집 보증금도 일부 지불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다시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얼굴과 팔에 마비 증상이 찾아와 응급실에 입원, 뇌출혈을 진단받게 됐다.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독립보행까지 가능했지만, 치료비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의 사연을 알렸고, 200만 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 21일 산사음악회

청소년 · 학인스님에 장학금 전달도



사부대중이 모여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펼쳐진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사진)는 10월 21일 오후 3시 남양주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3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에 동참한 기증회원과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불암사 합창단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마하무용단, 비니쌤, 배근호, 주권기, 코리아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동고 댄스팀 등이 출연해 가을산사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악회에 앞서 '일면 장학금 및 생명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열린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인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일면 스님은 2004년부터 매년 20여 명의 청소년과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원로 대덕스님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고에 보답하고자 개최하는 산사음악회에 부디 참석해 자리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양한 바자회도 진행된다. 마하무용단은 10월 21~22일 양일간 경내에서 바자회를 진행하고, 수익금 전액을 환자치료비로 지원한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21일 오전 11시~오후 5시 노인복지기금 마련 자비 바자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 장기기증 캠페인과 국화축제도 만나볼 수 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중생제도 원력으로 화엄 종지 구현”

범어사, 10월 6일 1345주년 개산대재 봉행

창건주 의상대사 정신 새겨
“미래세대 전하는 유산 돼”
개산 기념 특별사진전 마련
게리 민티어 촬영사진 선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10월 6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5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개산 1345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이 봉행됐다. 범어사는 개산대재를 통해 개산조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인 화엄의 종지(宗旨)를 구현하고 유구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범어사(주지 보운)는 10월 6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5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에는 지유 대선사, 주지 보운 스님, 김해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 율원장 원창 스님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배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개산대재는 마하다도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헌향 및 헌다 △내빈소개 △범어사 연혁 및 조사 스님 행장 소개 △봉행사 △공로패 전달 △인사말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나한전 후불탱화를 점안하기까지 노력한 이연수 불화장과 김윤주 해성문화재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날 범어사는 개산대재에 앞서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팔상, 독성, 나한전의 후불탱화 7점을 점안했다.

지유 대선사는 법어를 통해 의상대사가 범어사를 창건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했다. 스님은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했고 지금은 선찰대본산이라 불린다”며 “선종과 화엄경은 근본 가르침이 같다. 화엄경의 뜻을 알려면 부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망상분별이 사라지고 일심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볼 때 이 세계가 아름다운 꽃 ‘화엄’과 같다”고 설법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를 창건하신 의상조사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구현하고 중생제도의 원력으로 이곳 금정산에 터를 잡으셨다”며 “범어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백성의 의지처가 되고 유구한 전통을 지닌 우리 모두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쌓아올린 현재의 시간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유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개산대재가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해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천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한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불교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경내 일주문 일원에서 금정불교대학 민화반의 민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10월 8일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

한편,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특별사진전 〈지금 이 순간 : This is the moment〉가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게리 민티어가 찍은 사진으로 구성됐다. 게리 민티어의 사진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연 ‘2023년 게리 민티어 기증 사진전 〈1970년 부산 평범한 일상, 특별한 시선〉’에 전시됐으며, 전시 가운데 범어사를 주제로 한 사진을 선별해 새롭게 선보였다.

전시는 범어사의 장소 중 4곳을 중심으로 옛 추억을 선사한다. 전시에서는 먼저 범어사에 들어선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조계문을 중심으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을 마주할 수 있으며,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장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관람할 수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진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이자,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추억하는 방법”이라며 “천년고찰 범어사에서 나의 추억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순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출전망대 사업, 천성산 생태계 훼손 우려”

양산 내원사, 10월 10일 천성산 정상서 기자회견



천성산 정상에서 양산시의 일출전망대 건립 사업을 반대하는 내원사 대중.

경남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성산 일출전망대 사업에 대해 천성산 내원사(주지 지도)가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원사는 10월 10일 천성산 정상에 올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성산 일출전망대 추진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도 스님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출전망대 사업은 주위 환경과 습지보존지역 등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계획”이라며 “양산시는 시유지에 천성대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일출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 스님은 이어 천성산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양산시는 습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천성산 정상은 물의 발원지이다. 이곳 정상을 개발해 많은 차량과 인원이 운집하면 습지는 고갈되고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며 “천성산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지하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공사를 해 상관이 없다는 태도는 자연에 대해 무지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현재 양산시는 천성산 일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천성산 관광 자원화 가운데 천성산 일출전망대 건립은 핵심 사업으로 꼽혀 양산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이번 달 공사에 착수해 내년 새해 일출행사 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도 스님은 “양산시는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금부터 인원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차량 진입과 도로 공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드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9회 천태 茶문화대회 개최

천태종, 10월 8일 부산 삼광사 일원서


스님들에게 차를 올리는 다도회의 헌공다례.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이 10월 8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과 경내 일원에서 ‘제19회 천태차문화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다례시연과 들차회가 진행됐으며 다법 경연에 참여한 다도회를 격려하며 시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시연 및 경연에서는 대구 대성사 감로다도회와 창원 원흥사 원흥사다도회, 부산 정법사 다도회 등 6개 팀이 다법을 선보였으며, 들차회에는 포항 황해사, 공주 개명사, 대전 광수사 등 전국에서 모인 천태종 21개 사찰 다도회가 참여했다. 다례시연은 부처님전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로 시작해 선차 다법,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접빈, 염불 및 명상 수행을 진행하는 수행차 등 다양한 다법이 무대에서 펼쳐졌다.

경연에서 금상은 창원 원흥사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정법사가 받았다. 동상은 대성사와 해성사, 장려상은 월강사와 금룡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천태종 소속 사찰 다도회는 말차, 김해장군차, 보이차, 쑥꽃차, 목책철관음, 백호오룡 등 다양한 차로 가을 찻자리를 꾸몄으며, 삼광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오늘 차 한 잔을 통해 대중이 다선일미를 맛보고 지혜와 자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며 “천태종은 전국 사찰에서 다도회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차문화 대회를 통해 차향을 나누며 소통하고 전통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차인에게 다도는 수행과 다르지 않다”며 “차향으로 충만한 오늘 대회가 지혜를 나누는 결실이 된다면 각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라 격려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창립 54주년 기념대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한다. 이에 앞서 10월 31일에는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BBS,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 모집

10월 23~28일, 5박6일간 은해사 운부선원서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경북 영천 운부선원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수행 프로그램 지도법사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다. 수불 스님은 30여 년간 3만여 명을 지도하며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집중수행은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운부선원 선원장)의 지원으로 경북 영천 운부선원에서 진행한다. 운부선원은 재가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수행처이며, 성철 스님이 수행 정진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운부선원은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장소다.

간화선 집중수행 과정은 BBS부산불교방송이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다.

BBS부산불교방송은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은 화두를 중심으로 참 나를 찾는 효과적인 수행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최상의 수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797-513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10월 8일, 광명사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8일 광명사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및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육법공양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법어봉독 △봉행사 △법문 △축사 △기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진덕 스님,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및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과 광명사 신도 및 천태불자들이 참석했다.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불자가 참다운 불자로 살기 위해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을 십선(十善)이라 한다. 이렇게 병들어가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약 중의 명약이 아닐 수 없고 그 특효약의 핵심이 바로 십선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법문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의 지난 54년은 신행과 봉사의 길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구도 중생의 대승보살행을 닦아갈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 추모대재

부산불교연합회,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10월 10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추모대재를 통해 사명대사의 호국애민정신을 기리고 있다.

추모재에는 증명법사 혜총 대종사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강 정사 등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운 스님은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를 맞아 엄수되는 추모 법석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의지를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제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사명대사께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듯,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애민정신을 실천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연이은 봉사로 자비행

10월 9일 어르신 무료 효관광…11일 대중공양



자비나눔 실천단체 사단법인 부산정각원(대표 향공)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릴레이 봉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정각원은 10월 9일 창녕 남지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노숙자와 지역 어르신 무료 효관광’을 개최했다.〈사진〉 이 행사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부산정각원은 지역주민센터의 추천과 플래카드 홍보 등으로 만 73세 이상 어르신 360여 명을 모집했으며 경남 창녕군 남지체육공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향공 스님은 “오늘처럼 청명한 날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니 제 마음도 맑아진다. 또 흥겹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이 극락세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면 가을 바람에 모두 날려 보내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득 담아 가시라”고 인사했다.

한편 부산정각원은 11일 ‘이웃과 함께하는 정 나누기 만발공양’을 부산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산정각원은 700인분의 잔치국수를 준비해 시민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제2회 전국 사생대회 성료

초 · 중 · 고교 500여 명 참가



청소년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전국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7일 경내에서 제2회 전국 초 · 중 · 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통도사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전국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산문을 개방하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생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사생대회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생대회 사전 접수자만 400여 명에 이르며 현장 접수를 포함해 총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학생과 가족들은 통도사 경내를 거닐며 치유의 시간을 누렸으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사생대회 그림 주제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다’로 선정됐다.

사생실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며, 입상자 발표는 10월 13일 통도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주지 현덕 스님은 사생대회 개막식에서 “통도사가 개산 1378주년을 맞았다.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지켜져 왔다. 이곳에서 진솔하게 마주하는 맑고 밝은 마음을 화폭에 담아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리산 일원, '화엄 축제'로 장엄되다

구례 화엄사, 10월 6~8일 화엄제
'시민 함께하는 천년고찰' 슬로건
괘불재, 음악회 등 문화행사 '다채'
화엄사 굿즈 '비건버거' 시식행사도


구례 화엄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문화축제의 향연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시자장

시민의 품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화엄축제가 지리산을 품은 산사에서 펼쳐졌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화엄사와 지리산에 속한 천년고찰 등에서 '천년의 화엄, 전법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화려한 문화축제의 향연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화엄사의 새로운 전법 의지를 담아 '친절한 불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천년사찰'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명상순례와 함께 즐기는 화엄음악제가 행사의 백미로 꼽힌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화엄문화제는 천년의 전통문화를 간직해 온 사찰이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화엄사를 비롯한 우리 교구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축제의 첫 시작을 알린 사찰명상 순례길 체험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최근 '꽃스님'으로 화제가 되는 범정 스님을 포함,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깎아지른 절벽과 4인(원효 · 도선 · 진각 · 의상) 성인의 수행처로 알려진 사성암 주차장에서 시작해 섬진강 길을 따라 두꺼비다리, 대숲길, 문척교를 지나 6.9km의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1년에 한 번 괘불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국보 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이운과 괘불재는 불교예술의 장엄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높이 12m에 이르는 화엄사 영산회괘불탱화는 그 크기의 장대함과 균형 잡힌 형태, 밝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채, 치밀하고 화려한 꽃무늬 장식 따위에서 17세기 대형 불화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최고의 문화재이다. 이에 더해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이 집전한 작법의식은 불교의 무용, 음악, 독특한 의식이 함축된 불교의 종합예술이었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연성 스님과 해덕 스님의 사물 시연으로 시작해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소프라노 김주연, 테너 신상근,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정, 첼리스트 박건우의 아름다운 선율을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90여 명은 처음 경험하는 불교의식의 장엄함에 매료됐다.

괘불은 이날만 공개되고 이후 2일간은 모사품으로 교체돼 행사를 이어갔다.

둘째 날 화엄음악회는 행사의 백미로 꼽혔다. 해가 지고 화려한 경관조명이 대웅전과 각황전을 비추며, 화엄사의 사물(운판, 법고, 목어, 범종) 의식으로 시작한 음악회는 기존 화엄음악제와 다른 친근한 공연자들로 구성됐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사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엄사의 변화된 모습이다.

대금 이상현, 인도 전통무용, 비파 노장청, 정가 하윤주, 소리꾼 장사익과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와 최근 야간 개방행사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화엄사는 최근 화엄사의 브랜드를 갖춘 굿즈 개발과 시연행사, 김경호 사경장의 기획전 '법사리 展', 한국불교미술연구원의 '불화 회원전' 등을 함께 열며 한국불교문화를 선도해 가는 사찰의 위상을 확인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치유의 숲길,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을 걷는 행사로, 화엄사에서 연기암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통해 마무리됐다. 지리산 암자 순례길은 화엄사 계곡을 따라 녹음이 짙은 숲속과 계곡 물소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구충암, 금정암, 내원암, 청계암을 통해 연기암에 이르는 총 2.1km코스다.

화엄문화제는 시민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어가는 화엄사만의 길이 될 전망이다.

태고총림 선암사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취임

선암사, 10월 10일 진산식 봉행
"교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약속



선암사는 10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 선암사 주지에 승범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는 10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2세 주지 승범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원로의원 금용, 남파, 설봉, 지현, 관정, 현호, 구하 스님 등 종단의 원로스님들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광주전남 원로의장 금영 스님,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 전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 종무원장과 선암사 사부대중, 그리고 전남도 동부청사 정찬균, 순천시 유현호 부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승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선암사는 근현대 한국불교 역사의 흐름에서 태고종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요동쳤던 법난의 질곡 속에서도 종단의 뿌리이자 근본 도량으로 묵묵히 부종수교의 역할을 다해 왔고,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으로 정혜쌍수 · 이사무애의 대승사상과 성불도생의 종승을 선양하는데도 선암사는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 모든 사업이 주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 앞으로 주지 승범 스님과 집행부에 힘과 원력을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승범 스님은 "선암사는 수행 도량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불교의 문화와 역사, 건축 등을 담은 한국 최고의 사찰로, 많은 분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고 있다"며 "제가 32세 주지 소임을 맡아 역대 이어 온 수행정진 가풍을 계승하고, 총림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승범 스님은 이날 선암사 실무 소임자를 비롯해 강두중 신도회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산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승범 스님은 총림으로서 선암사의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승범 스님은 "총림 운영을 위해 교육공간과 숙박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성보박물관이 25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기는 협소하여 이를 확충해 세계문화유산의 위상에 맞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수행가풍과 관련해 스님은 "선암사의 청규를 회복하여 승가의 수행풍토를 가다듬는 데 진력하겠다"고 주지 소임의 청사진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초기불전연구원 보리원 신축불사 낙성

초기불전 역경사 및 전법사 양성
원전강독과 공동번역 실습 진행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목표로 개원한 초기불전연구원 보리원(원장 대림)이 10월 9일 김해 보리원 신축법당에서 신축불사를 회향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개설 초기 보리원은 도량이 좁아 학림 등의 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물의 누수까지 겹쳐 새로 도량 건립 원을 세워 2015년부터 8년에 걸쳐 부지 마련, 임시법당 마련, 기존 건물 철거, 신축의 과정을 거쳐 초기불전연구원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새로 신축한 보리원은 대지면적 148평의 3층 건물로 1층은 법당과 종무소, 2층은 식당과 방사, 3층은 접견실과 스님 방사로 구성됐다.

보리원 원장 대림 스님은 "그동안 보리원은 역경도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며 대중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질문하고 설명하는 법회와 강좌를 개설하던 중 좀 더 많은 불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불사의 염원이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보리원은 역경사 양성 및 원전강독과 공동번역 실습을 진행하고 초기불교 전법사 양성 및 불교대학을 개설하겠다"며 "위빠사나 수행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 주제별 초기불교 수행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가 평안 기원"…무위사 수륙재 봉행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법문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명으로 시작된 무위사 수륙대재가 봉행됐다.<사진>

전남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는 10월 7일 경내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지역민의 평안과 국가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는 세종의 명으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기리고, 건국에 희생된 고려왕실과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며,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조선 3대 수륙대재로 평가받는다.

기념식에서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상에 예를 올리는 것은 자손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다. 조상은 과거이고, 현재는 나이며, 미래는 자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범오 스님은 "수륙대재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시고 평등하게 법식을 베풀며 소통하는 장이다"며 "모든 것이 인과로 연결되어 있어 수륙대재를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참가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는 피리독주(국립남도국악원 나영선), 첼로와 해금 콜라보, 춘앵전, 강선영류 태평무, 판소리, 사물놀이, 버꾸춤 등이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상진 스님, 광주전남종무원 방문

10월 6일, 운천사서 간담회
"종단 발전 위한 화합" 강조



지역 종무원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이 광주전남종무원(종무원장 월인)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10월 6일 광주전남종무원 운천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은 종도들의 주인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종단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대중의 화합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전남 원로의장 금명 스님, 율사 수진 스님, 종회의장 보응 스님, 수석부회장 연봉 스님 등 50여 명의 광주전남 소속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여했다. 종단에서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참석해 지역 현안 등을 경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 베트남 불자 수행처 해원사 개원

주지 프엉 스님 취임법회도
베트남 불자 1500여명 동참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불자들과 주민들의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될 양산 해원사가 10월 8일 경내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개원법회 및 주지 틱 느 쩐 프엉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원사 주지 쩐 프엉 스님은 "해원사가 비구니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선문(禪門)의 종지(宗旨)를 지키는 곳이 되며, 천마산 숲이 보리심을 양성하고 한국 땅에서 베트남 민족의 얼을 지키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양산 해원사는 최초의 베트남 사원인 천안 원오사 종무회의에서 한국 남부지방에 베트남 사원 건립을 발원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공동 쉼터이자 불교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불교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불사를 진행해 이날 완공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제6회 공양미 콘서트 개최

쌀 2600kg, 익산시에 전달해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올해 여섯 번째 맞는 익산 관음사 공양미 콘서트는 10월 7일 익산 관음사 청년회에서 주관했다. 이날 모아진 공양미는 2600kg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전달됐다.

공양미 콘서트에는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찬불가 등 합창곡 공연과 관음사 청소년 야단법석 풍물단의 공연, 소리야 난타팀, 불자가수 명현, 윤윤아 등 지역활동 가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주지 덕림 스님은 "공양미 콘서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음사가 도심사찰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명대사 · 독립 애국지사 추모합니다

무봉사, 10월 10일 추모재



밀양 무봉사(주지 천주)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운 사명대사와 밀양 출신 의열단 김원봉과 75인의 독립지사 추모재 및 제1회 영남루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사명대사의 열반 413주기인 10월 10일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대웅전과 아랑각에서의 고유제에 이어 추모 법요식이 봉행됐다. 무봉사 영남루 앞마당에서는 아랑장구, 이필호 한국무용, 불자가수 김효원, 최욱, 앙상블 색소폰 연주, 가수 소리새와 채은옥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이어졌다.

이날 법회에는 무봉사 주지 천주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미타암 동진 스님, 표충사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박일호 밀양시장, 정정규 시의장, 안영숙 무봉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사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10월 8일, 300여명 동참해



울산 정토사불교대학(학장 덕진)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10월 8일 울산 학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로 22번째로 그동안 정토사불교대학을 졸업한 45기까지의 동문과 주야간반 재학생 300여 명이 동참했다.

달마, 문수, 보현, 관음의 4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계주 달리기 등의 게임으로 구성된 한마음 명랑운동회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개막식에서 정토사불교대학장 덕진 스님은 "오늘 도반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지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탁마(琢磨)할 수 있는 자신으로 가꾸어 가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폭에 피어난 천년의 발원을 친견하다

박영빈 객원기자의
일본 규슈 박물관 고려·조선불화 특별전 관람기


조선전기 건축과 단청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석가탄생도'


고려불화의 백미로 불리는 '카가미신사 수월관음도' 세부 모습.


인성왕후가 발원한 '관세음보살삼십이응상도'


특별전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

후쿠오카=박영빈 객원기자

"내가 수월관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저를 보러 오신거죠."

전시실에 걸린 카가미 신사 소장 '수월관음도' 앞에 홀로 앉아 한참 불화를 바라보던 한 관람객은 감동에 붉어진 눈시울로 감상을 이야기했다.

규슈국립박물관(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개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9월 5일부터 열린 전시회는 일본 내에 산재한 고려와 조선전기의 여러 불교미술품을 한데 모아 공개하는 특별전. 특히 이번 전시회엔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카가미 신사(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를 필두로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불화들도 함께 공개된다는 사실이 큰 주목을 끌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미술 연구자들은 물론 전통 회화 및 공예 작가, 애호가들은 전시의 개최 예정이 공지되자 작게나마 소동이 일었다. 이번에 가지 못하면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불화 최고 작품인 카가미 신사의 수월관음도가 등장하고, 조선전기 불화로는 수많은 역사적, 예술적 정보를 담고있는 '석가탄생도', 고려 천추태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감지금자대보적경 사경' 등이 한자리에 모인단 사실만으로도 꿈과 같은 전시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후쿠오카시미술관(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조선전기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전 〈조선왕조의 회화: 산수·인물·화조〉가 열려 이 두 전시를 한번에 보기 위한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실제 전시장에서 만난 한국인 관람객 대부분이 이 두 전시를 위해 일부러 규슈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규슈국립박물관 측은 "불교를 숭상한 고려와 억압을 가한 조선은 서로 불교에 대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으나, 천년이 넘는 두 시대에서 많은 불교미술이 탄생했다. 이 가운데 특히 뛰어난 시기라 불리는 11~16세기 사이의 작품을 모아 전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전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불상, 사경, 나전공예품까지 48점이 출품됐다.

전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박물관에서 공개한 전시품 목록을 보았을 때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가 공개된다는 것도 놀랐지만, 석가탄생도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는 점에 더욱 설렐 수밖에 없었다. 가장 보고 싶었던 불화 두 점을 한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전기전시와 후기전시로 나누어 전시작의 일부교체가 진행되기에 두 전시를 모두 보겠다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고, 박물관 측에 취재요청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규슈국립박물관 한국어 홈페이지에선 문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어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더듬어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큰 전시가 있는데도 교계신문 어느 곳도 특별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단 점에서, 이 전시에 대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카메라도 빌렸다. 평소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현장의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업을 하는 지인에게 고려불화를 보러 일본에 간다는 이야길했더니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메인 카메라를 선뜻 내주었다. 지인은 "나중에 다 보정해 줄 테니 일단 어둡든 밝든 찍어만 오라"며 귀한 모습들을 잘 남겨오라 격려해줬다.

취재도 취재지만 불교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문정왕후 발원의 〈약사삼존도〉와 전 세계에 10점 남짓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국화당초나전경함〉이 전시되는 전기전시에 중점을 둬 취재 요청도 전기전시의 마지막 날인 24일로 했다. 24일보단 며칠 앞서 일본에 가서 조선회화전 등을 보고 하루를 통째로 취재에 쓸 요량이었지만 출국하는 당일까지도 취재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취재는 못하고 전시만 보고 오는 게 아닌가, 주변에 괜히 호언장담했나 하고 곤란하던 찰나 22일 저녁에 취재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특별전에 전시된 몇몇 전시품에 대한 촬영과 지면게재는 불가라고 안내 받은 목록에 하필 약사삼존도와 경함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특별전에 일본현지·한국 큰 주목
불상, 사경, 나전공예품 등 48점
'수월관음도' 살피는 관람자 가득
"고려·조선불교 단절 아닌 지속"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 규슈국립박물관이 있는 다자이후(太宰府)에 도착했다. 지금은 후쿠오카시가 대도시로 번성하지만 사실 고대 규슈의 중심지는 이곳 다자이후였다. 일본 조정은 이곳에 행정처를 설치하고 한반도나 중국과의 외교나 무역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서는 쇠퇴하게 됐고, 근대에는 항구가 있던 후쿠오카시가 더 번성하면서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했지만 그 역사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 도시다.

역에서 10분 남짓 걸어 박물관에 도착, 취재 완장을 수령하고 전시실로 안내 받았다. 두 전시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특별전은 어딜 둘러보아도 빼놓을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넘치는 아름다움에 대체 뭘 찍는지도 모르게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단연코 압권은 고려불화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카가미 신사(鏡神社)소장 수월관음도. 가로 254.2cm, 세로 419.5cm의 대형불화로 지난 2020년 사가현립박물관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래 대중공개는 오래간만이다. 국내에선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마지막 공개였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지난 2005년 박물관을 새로 지으면서 이 불화를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을 따로 설치했다.

커다란 수월관음도 앞은 단망경을 들고 구석구석 그림을 살피는 관람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 분께 부탁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회화전공의 이수영 겸임교수가 있었다. 이수영 교수는 "당연히 이 수월관음도를 실견하기 위해 한국에서 찾아왔다. 모든 한국 불화 전공자들의 로망과 같은 불화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세계가 느껴진다"며 감동을 전했다. 또한 다른 불화들을 가리키며 "30여 년 전 처음 고려불화를 실견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세월에 따른 열화가 진행된 것이 보여 마음 아프다. 워낙 오래된 불화들이라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려불화는 볼 수 있을 때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오직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를 위해 서울에서 왔다는 조안나 씨는 "사실 불자가 아니지만 몇몇 불교 미술품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 고려불화를 알게 됐다. 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처음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선재동자를 내려다보는 보살님의 시선이 꼭 나도 내려봐주시며 위로해주시는 느낌이었다. 마치 인생의 가르침을 불화를 통해 받는 느낌"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과연 그 말을 듣고 바라보는 수월관음도의 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자비가 느껴졌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전기 불교회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석가탄생도〉 역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석보상절〉의 내용을 불화로 옮긴 이 작품은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을 꼭 조선시대의 왕처럼 묘사하고, 궁궐의 묘사나 단청 등이 조선전기 건축의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전통건축학과를 졸업했다는 김도경 씨는 "분명히 실존한 건물들을 보고 그렸음이 분명하다. 15세기 조선전기 다포식 건물을 그대로 옮겨두었다. 특히 이 석가탄생도에 그려진 문루는 조선전기 광화문의 형태를 추정하는 사료로 꼽힌다. 작품을 실견할 수 있어 엄청난 감동"이라며 단망경을 들고 한참을 그림 속 건물들을 살폈다.

박물관 측은 "예상외의 엄청난 호응이다. 전시도록만 해도 전기전시에서 완판돼 긴급인쇄에 들어갔다. 고려와 조선의 불교문화는 단절이 아닌 지속이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 내소사 함께하는 문화여행
산사음악회
2023년 11월 4일(토) 오후2시 / 부안 능가산 내소사
프로그램 · 산사음악회:오후2시 · 불교문화체험:오전11시-오후5시 · 부안군민공예체험:오전11시-오후5시
내소사홍보 · 내소사템플스테이:오전11시-오후5시
불교문화체험프로그램 · 전통차 체험 · 소원컵 연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체험
문의 063.583.7281
함께하는 아티스트
서정성 짙은 한국 최고의 포크가수 정태춘, 박은옥
4인조 록 밴드 로맨틱펀치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과 국악단
현악4중주 앙상블 'Arte'

대원만 정도 광명 大圓滿正道光明 전4권
강설 : 츠총로주 캔포
편역 : 지엄 스님
『대원만 정도 광명大圓滿正道光明』은 초학자에게는 불교의 보고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이고,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비결을 얻는 보전寶典이고 열쇠이며, 뜻이 있어 깊이 불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교 경론을 공부하는 지침이 된다.

‘60돌’ 동국대 박물관에 부처님들 나투셨네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
돈관 스님 등 100여 대중 참석
10월11일~12월26일 전시 진행
‘목조관음보상’ 복장물 첫 공개
수집 소장품 50여 점 엄선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개관 60주년을 맞은 동국대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임영애)은 10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동국(東國)에 오신 부처님’ 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6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가운데 50여 점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았다.

‘동국에 오신 부처님’ 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부 ‘박물관, 60년 역사를 시작하다’ 에서는 60년간의 동국대 박물관의 발자취와 초대관장 故황수영 박사의 조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재료, 구별해서 이뤄내다’ 에서는 돌, 나무, 흙, 금속 등 재료에 따라 불교 존상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2부 ‘불교 존상, 다채롭게 담아내다’ 는 불상,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불교의 존상을 조각과 불화 작품을 통해 선보이며, 3부 ‘불복장, 신성한 생명력을 불어넣다’ 는 불상의 복장을 살펴 불상 제작자들이 불상에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620년 조성 ‘목조관음보살입상’ 의 복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 보살입상의 복장에는 조성기를 비롯해 후령통, 오곡, 오방경 등이 잘 남아있으며, 인삼도 함께 발견되어 당시 불상 복장에 납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보현행원품 변상도 가운데 유일하게 역경 장면이 묘사된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1390년), ‘목조아미타삼존불감’ (1637년), ‘영산회상도’ (1777년) 등 명품 유물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 앞서 10월 10일에는 주요 내 · 외빈과 함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처음 공개되는 목조관음보살입상 복장을 살피고 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지난 60년 동안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 · 보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그간의 노력들을 전시로써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를 함께 하는 관람객들 마음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동국대 박물관은 불교 종립대학의 유일한 종합박물관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교육으로 후학을 양성해왔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의 60년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수집한 다채로운 불교 성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기대했다.

동국대 박물관장을 지낸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가치와 수량만을 놓고 보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박물관”이라며 “동국대 박물관이 더욱 일신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은 박물관 소장 성보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쓸 뜻을 밝혔다. 임 관장은 “전시 제목인 ‘동국에 오신 부처님’에서 ‘동국’은 동국대와 한국을 의미한다. 전시를 통해 부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학교에 오셨는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현재 박물관은 국보 2점, 보물 8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장으로서 우수한 성보를 선별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국대 박물관은 故황수영 박사를 초대관장으로 1963년 9월 1일 개관했다. 1960년대부터 임강사지 발굴을 시작으로 성주사지, 분황사 등 전국 사찰 및 사지를 조사했다. 1970년에는 울산 반구대 · 천전리 암각화를 처음 발견 · 조사해 선사미술 연구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통도사는 차의 종가…最古 차밭 있었다”

통도사, 제1회 차문화학술대회
茶시배지 지리산 아닌 통도사
차문화史 자장율사代로 수정을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사 국제 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차 문화의 시발점은 신라의 대신이었던 대렴(大廉)이 흥덕왕 3년(828)에 차(茶)종자를 지리산에 심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라의 차는 9세기가 아닌 통도사 창건 당시인 7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사 국제 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제 차 문화에 대한 역사와 불교의 관계성을 고찰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차 시배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신라의 차는 그 이전 선덕여왕(606~647) 때부터 이미 있었고, 한국의 차는 대렴의 9세기가 아닌 7세기 때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한국 차문화의 태동을 알리는 가장 오래된 차밭은 통도사가 가지고 있었다. 통도사는 한국에서 ‘다지종가(茶之宗家)’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며 “한국의 차 시배지가 지리산이 아니라 통도사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통도사가 차 시배지라는 증거는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에 있다. 자장(慈藏, 590~658)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것은 643년이며 646년에 통도사를 창건했다. 자장의 제자 조일 스님이 다소촌(茶所村)에 거주했고, 이는 통도사의 차밭은 적어도 창건 당시부터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7세기 신라의 차밭이 있었다는 것이다.

통도사의 차 기록과 전승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노 교수는 “한국차의 역사를 무릇 180여 년이나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의미”라며 “신라의 주요 차생산지를 추정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관검평 교수(중국절강농림대가 ‘중국 고대사회와 불교의 차문화’를, 키즈소센 교수(일본 무사노코지센케류)가 ‘견당사와 일본의 끽다문화’를, 여순덕 연구원(대만 중앙연구원)이 ‘대만 차의 기원’을 발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진실 조명

봉려관불교문화硏 ‘근대 제주불교사’ 학술세미나

10월 21일 제주 테크노파크서
‘근대 제주불교사’ 진실들 조명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테크노파크(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Ⅲ’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의 활동상을 살핀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인물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불교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핀다. 제주 쌍계암 상민 스님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성격 조명’을 통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관련 사업의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통해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을 새로 번역 · 교감해서 공개하며, 정구용의 판결문서 9건도 함께 대중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 예술로 형상화하다

한국불교미술협회, 제31회 협회전
10월 18~24일 세종문화회관 2관


김선희 작가의 ‘아미타정토도’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2관에서 ‘각(覺) · 각(各) · 형(形) · 상(像)-깨달음의 서로 다른 표현’을 주제로 31번째 협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희 등 회원 작가 12명의 부스 전시와 회원 작가 32명의 작품 발표 전시로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는 MZ세대 작가와 선배 중진 작가들의 교류전도 진행된다.

김선희 한국불교미술협회장은 “한국불교미술협회는 훌륭한 작가들의 지혜를 모아 불교미술 대중화를 통한 포교 방안이라는 취지 하에 불교미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K-불교미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 옥스퍼드대학교 인문교양 시리즈 ★

매 순간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크릿,
삶의 ‘격’을 높여 주는 영성에 관한 교과서!



필립 셸드레이크 지음 | 한윤정 옮김
216쪽 | 16,000원 | 불광출판사

내 삶을 완성하는 영성에 관한 모든 것
영성이란 무엇인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차원을 향해
영적인 삶,
영적 능력을 계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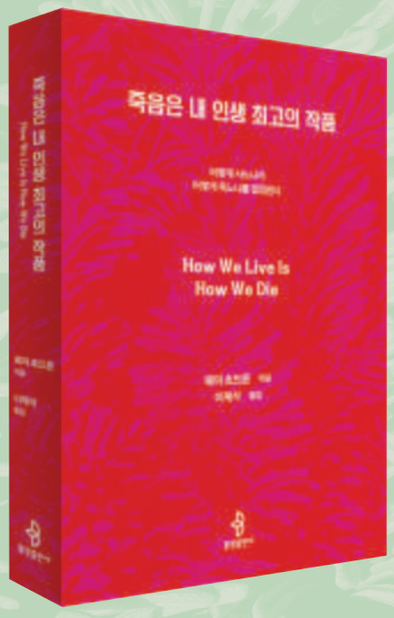
“영성은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 본문 중에서

Spiritua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

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페마 초드론 지음 · 이세석 옮김 | 336쪽 | 20,000원

달라이 라마와 함께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페마 초드론이
티베트불교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찬가(讚歌)이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마 초드론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자 ‘마음 전문가’
‘왓킨스 북’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북미 지역 첫 티베트불교 도량인 감포 사원(Gampo Abbey) 원장

© christine alicino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1~10/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2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4	설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1권,2권/합본)	설우 스님 지음	사유수
5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불교의례의 시대도상	강영철	꽃피는아몬드나무
7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9 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 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8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9	기본을 다시 잡아야겠다:무심하고 담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인 산문집	디플롯
10	죽창수필:요즈음,당신의 마음 뜨락은 어떠한가	운서주굉/연관	불광출판사

책세상

"무량한 선행은 궁극적 진리로 돌아간다"

〈萬善〉 〈一心〉



만선동귀집 총송
진우 스님 강설
2만2000원 / 조계종출판사

영명연수 선사 저작 〈만선동귀집〉
진우 스님, 용흥사본 소장하며 인연
틈나는 대로 번역하며 SNS에 연재
문답 114조 구성된 '선교일치 개론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우 스님**은… 1972년 강릉 보현사로 출가한 후 강릉 관음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백운 대강백을 은사로 수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완도 신흥사 · 광주 관음사 · 담양 용흥사 주지, 백양사 총무 소임 후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사서실장, 호법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대행을 역임했다. 불교신문사 사장, 제8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현재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좋은 것이 생기면 싫은 것은 저절로 생긴다. 영원하지 않는 고락의 분별 속에서 중생은 '좋다 싫다' 하며 고락을 윤회(輪廻)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苦)가 낙(樂)이 되고 낙이 고가 되는 고락의 분별이 돌고 도는 삶을 살고 있다. 좋다는 것과 싫다는 것의 질량은 똑같다. 이를 업(業)이라고 한다. –25쪽

오늘도 분별하지 않고 중도(中道)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도 함께 할 일이다. –32쪽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다 해도 인연 연기에 따라 완벽하게 인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그렇게 보고 듣지 않고, 좋다 싫다 하며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토(淨土)이다.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마다 묘용이 아닐 수 없다. –35쪽

참자비는 물에 빠진 이를 우선 구하여 옷과 먹을 것을 주는 행이다. 그 다음 다시는 물에 빠지지 말 것을 타일러서 스스로 물에 빠지지 않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50쪽

기실 경전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렵게 설법하지 않으셨다. 당시 언어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을 전했고, 당대 선지식들도 여러 방편으로 불법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법안종의 제5대 조사이자 정토종 제6조인 영명연수 스님 역시 다양한 방편으로 불법(佛法)을 대중에게 전한 대승불교의 고승이다. 선 · 교와 염불을 두루 아우르며 사상적 폭이 매우 넓었던 연수 스님은 만년에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장하며 선과 염불의 겸수를 말했으며, 저녁에는 늘 행도염불(行道念佛, 걸으면서 하는 염불)을 했다고 전해진다.

연수 스님이 선풍(禪風)을 일으킬 무렵은 당대 말기로 정치 · 문화 · 경제 · 사회 · 종교 등 각계각층이 혼란한 시기였다. 융성했던 선종도 종파의 특징과 우열을 논하였다. 선교의 대립적 구도로 싸웠고, 선종 각 종파 간의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연수 스님은 불교 종파뿐만 아니라 선종 간에도 간격을 좁히기 위해 '일심(一心)' 이라는 가르침으로 모든 종파를 회통하며, 전체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런 연수 스님의 대표적 저술이 100권에 달하는 대작인 〈종경록〉이다. 이를 3권 분량으로 압축해 요약한 것이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이고, 이를 다시 게송으로 요약한 것이 '총송(總頌)' 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펴낸 〈만선동귀집 총송〉은 연수 스님이 전했던 사상의 요체를 담아낸 '총송' 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다. 문답식으로 총 114조로 구성된 〈만선동귀집〉의 '총송' 을 진우 스님은 총 4장으로 나눠 해설했다.

'만선동귀' 라는 일구(一句)는 영명연수 스님의 사상의 요체다. 실제 연수 스님은 〈만선동귀집〉에서 "이름을 빌려 묻는다면 항하사와 같은 수로 대답할 수 있거니와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만선동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시 진우 스님은 이 같이 풀어낸다.

"무량한 선행을 '만선(萬善)'이라 한다. '동귀(同歸)'라 함은 부처의 길로 함께 돌아간다는 뜻이다. '만선동귀(萬善同歸)'라는 말은 세간 및 출세간의 무량한 선행으로 일심(一心)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진우 스님이 보이는 강설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법문도 "지금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흐름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진우 스님의 강설집은 〈만선동귀집〉의 난해함은 걷어내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마음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며 성냄, 화, 분노 등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수행인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만선동귀집 총송〉을 통해 그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싫고 나쁜 것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매사에 감정을 얹지 말라. 좋다 하는 감정을 내지 않아야 싫고 나쁜 감정의 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하면 저절로 평안이 찾아온다." –27쪽

"계를 어기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때문이다. 욕심은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다. 즐겁고 기쁜 마음은 상대적으로 괴롭고 슬픈 인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과보가 생겨서 고통과 괴로움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 – 57~58쪽

이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좋은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스님은 쉬운 언어로 차분히 설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용흥사본 〈만선동귀집〉 소장자라는 인연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100권의 〈종경록〉을 압축시킨 만큼 그 내용이 난해해 일반 대중이 접하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말미에 게송 형태 요약본 '총송' 이 있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변화하는 인연이 되길 바라며 '총송' 에 대한 번역과 해설을 시작했고, 이를 스님의 개인 SNS에 연재해왔다.

진우 스님은 〈만선동귀집〉이 연수 스님이 여러 경전과 여러 종파의 교의를 정리해 다시 체계화시킨 책으로 "선교일치를 말하는 개론서"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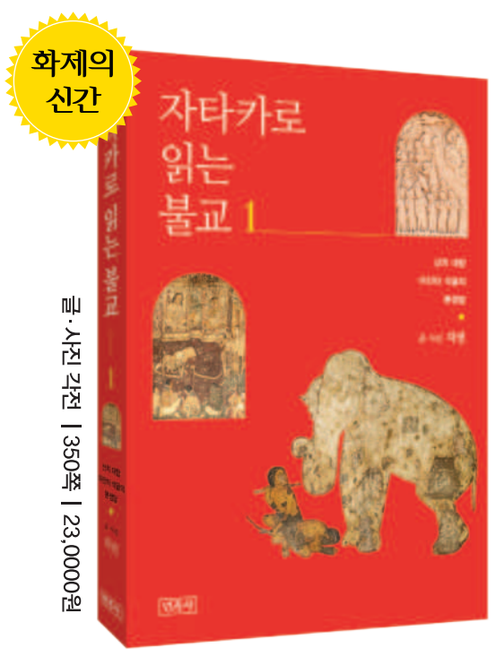
그렇기에 진우 스님은 " '총송' 부분만 잘 읽고 내용을 제대로 소화시킨다면 〈만선동귀집〉 3권을 전부 읽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종경록〉 100권을 읽은 것과 다름없는 공덕이 쌓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설집의 머리글에 진우 스님은 이 같은 게송을 남겼다.

영명연수의 뜻을 알고 싶은가?
문 앞에 펼쳐진 호수이니라.
햇살 비치니 맑게 빛나고
바람 부니 물결이 일어나네.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 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부처님 본생담서 나의 바탕을 만나다



자타카로 읽는 불교1
각전 지음
2만3000원 / 민족사

산치대탑 부조, 아잔타 석굴 벽화 속
부처님 본생담 25편 선별, 쉽게 해설
難行을 能行으로 변화시키는 힘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각전 스님과 도반스님, 신도들이 함께 떠난 인도 성지 순례. 뒤로 녹야원의 다메크 스투파가 보인다.

고전(古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확인된다. 항상 곁에 두고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서다. 불교의 고전 중의 고전은 바로 '부처님 자타카(본생담)' 이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자타카' 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이야기' 나 '아라비안나이트' 부터 영웅 서사시인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치 대탑, 아잔타 석굴, 바르후트 스투파, 간다라 미술뿐만 아니라 중국의 키질 석굴, 둔황 석굴, 보로부두르 대탑에도 자타카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2021년 제18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은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녀온 인도 네팔 순례에서 부처님의 성지와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산치 대탑 등을 답사했다.

각전 스님의 전작 〈인도 네팔 순례기〉가 부처님이 살아생전 계셨던 곳에서의 이야기라면 최근 발간한 〈자타카로 읽는 불교 1〉은 난행(難行, 어려운 행)을 능행(能行, 능히 행함)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이다.

본생담은 540여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중 산치-아잔타 본생담은 총 25편이다. 각전 스님은 산치 대탑에 부조로 조각되고 아잔타 석굴에 벽화로 그려진 본생담만을 뽑아 니그로다미가, 마뚜뽀사까, 찻단따, 마하수따소마 본생담 등을 책에 실었다.

부처님 전생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된다.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허벅지 살을 도려내 준 부처님, 자신이 구해준 궁수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오히려 그를 위해 살아날 길을 알려주는 황금 사슴이었을 적의 부처님 등 코끼리, 원숭이, 백조, 왕, 궁수 등으로 태어났던 다양한 모습의 전생 이야기가 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부처가 된 것이 아닌 반복적인 생과 사의 윤회 속에서 전생의 자기희생의 복덕 덕분에 부처가 됐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의 현세(現世)의 모습은 전생의 결과이고, 내세(來世)의 모습은 현세의 결과인 것이다. 본생담은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난행을 능행으로 이끄는 보살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준다.

본생담은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찬찬히 살피면 나 자신의 마음 밑바닥의 이야기임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의 본생담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악에 대항하며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악(惡)이 스스로 느껴 선(善)이 될 때까지, 내 몸이 사라질 때까지 악을 끌어안아 폭풍우가 아닌 따스한 햇살로 포근히 감싸 안는 것, 이것이 본생담이 일깨우는 진정한 의미이다.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 맞서 싸우지 않고 자비를 통해 악인이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임을 본생담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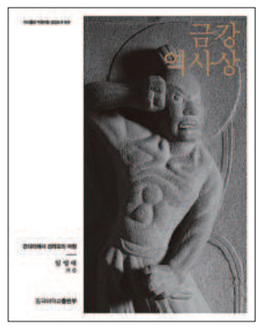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금강역사상'

'올해의 불서10' 선정 · 발표
신설 한길번역상엔 '석씨요람'
오는 10월 31일 시상식 개최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의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이하 〈금강역사상〉)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10월 10일 '2023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금강역사상〉(임영애, 동국대출판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랜 시간 금강역사상을 애정을 갖고 연구했던 임영애 교수가 발간한 〈금강역사상〉은 간다라에서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반도까지의 금강역사상을 총망라한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1~2세기 간다라부터 9세기 신라까지, 각 시기마다 또 지역마다 금강역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금강역사의 모든 것을 담은 한 권의 책' 이라 지칭할 만하다.

우수상에는 〈공양간의 수행자들〉(구미래, 담앤북스)과 〈불교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마성, 민족사)가 수상했다. 붓다북학술상에는 〈조론연구 조론오가해〉(조병활 역주, 장경각)가 보덕전법상에는 〈불유교경〉(영화 저 · 상욱 외 역, 어의운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입선작에는 △〈꽃이 된 아이〉(박상재 저 · 국은오 그림, 단비어린이)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원제, 불광) △〈말로 말을 버린다〉(이민용, 모시는 사람들) △〈사소한 것은 없다〉(동은 · 진광, 모과나무)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홍창성, 운주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한길번역상' 은 〈석씨요람(1,2)〉(석도성 저 · 김순미 역주, 운주사)이 수상했다. '한길번역상' 은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후원으로 고전 번역서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출판사와 역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시상한다.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대전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일생을 하루처럼 살아야 한다"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
성전 지음
1만6800원 / 담앤북스

성전 스님의 마음은 아침 햇살을 닮았다. 누구나 두 팔만 벌려도 무한한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스님의 마음도 그렇다. 자연 아래 평등한 우리, 승속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도반에게 전하는 속삭임이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BBS불교방송에서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를 통해 매일 수많은 청취자와 대화하고 위안을 전하는 성전 스님이 신작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을 펴냈다. 어쩌면 매일같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님이 굳이 펴낸 책. 하지만 목소리가 아닌 글로 전하는 사색과 사유의 열매는 방송의 그것과는 맛이 다르다. 용기이기도, 위로이기도 한 스님의 읊조림은 언제나 빛을 따라간다.

'꿈이 깨어지자 인생의 눈부심이 사라졌다. 초라한 나만 남았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꿈보다 먼저 있고 꿈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눈부시지 않으면 어떠리. 또 초라한들 어떠리. 내일 나는 또 새벽별 보며 그 별빛과 함께 태어나리니. 그대여 나를 위해 꽃들까지도 춤추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려나.' –그래도 괜찮다 中에서–

빛을 노래하는 스님의 위로는 아침 햇살을 만나 하루를 보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일주일을 그린다. 연꽃이 필 땐 일 년을 생각하며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서 인생을 짚어보는 성전 스님. 이처럼 스님의 글은 하루, 일주일, 일년, 끝으론 인생까지 시간이라는 흐름 속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

"시간의 가장 큰 성장은 하루다. 일생은 하루로 압축된다. 하루가 되는 일생.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하루처럼 살아야 한다. 하루가 남았다는 말은 초라하다. 하루가 되었다는 말은 결연하다. 하루와 일생은 똑같은 무게를 지닌다. 하루가 되는 일생 일생이 되는 하루." –일생을 하루처럼 中에서–

아침에 만족을 배우고, 한 주가 저무는 시간 앞에 고개를 숙이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물음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자. 때로 반짝이고 때로 외로운 날들 앞에서 사랑이라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대사가 보인 배움의 길



다원화한 인생을 열다
성운 저 · 이승준 역
1만6000원 / 운주사

'대만의 스승' 이라 불리는 성운 대사가 지난 2월 5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인간불교' 의 기치를 내세운 성운 대사는 대만 가오슝에 불광산사를 창건한 이래 한평생 대만과 해외 각지에서 불교문화의 진흥과 교육, 자선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온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일대종사로 존경받았다.

〈다원화한 인생을 열다〉는 성운 대사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힌 학습 과정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로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운대사 스스로는 겸허하게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학습 과정에서 드러난 풍부하고 빼어난 인생역정을 보면 마치 한 권의 인생 종합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책은 성운 대사의 자발적 학습(自學) 과정 이야기로 시작한다. 성운 대사는 평생 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적이 없고,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유치원 졸업장도 없지만 그것이 곧 공부와 배움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이른바 "늙을 때까지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어릴 적부터 '인생은 바로 배움의 과정' 이라 여기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기학습(自我教育)' 의 여건을 만들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에 성운 대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외부에서 불어오는 온갖 비바람도 막아야 하지만, 자신의 계발에도 적극적이어야 하며, 마음속 에너지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후회 없이 인생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에서는 대사가 '스스로 배우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글쓰기, 강연하기, 독서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독서회의 유익함을 적극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성운 대사는 자기학습의 목적에 대해 지식 측면에서 남을 돕고, 도덕적으로 남을 감화하고, 실용 면에서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궁극적으론 사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져야 비로소 가치 있는 학습임을 강조한다. 불교 역시 본연의 홍법과 이생(利生)사업 외에도, 사회에서 문화 · 교육 · 자선 · 환경보호 등의 해야만 불교가 비로소 사찰에서 나와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7 보석을 찾는 이 2



▶한줄 요약
아디카야의 검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의 행방을 쫓기로 한다.

만다라 속 성물은 이석원과 함께 사라지고…

그럼 망가진 만다라를 손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가 보고는 그냥은 쓰지 못하겠으니 틀은 그대로 쓰고 비단을 다시 입혀 그려야 하겠다고 하드라오. 그래 실력을 한 번 보여 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더라오. 그날로 그에게 새 만다라를 맡겼다고 하오. 그와 똑같은 만다라를 그려 달라고 했던 거요. 금줄을 치고 금토를 뿌리고 그는 홀로 그 속에서 만다라만 그렸는데 내가 갔을 땐 이미 그 한국 젊은이는 없었소.

-그럼 젊은이가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심 작가가 물었다.

-그건 모르겠소. 그와 똑같은 만다라를 그려달라고 해 금줄이 쳐진 그 속에서 젊은이 혼자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하니 말이오.

이석원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다. 물론 밖으로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젊은이. 그리고 금어. 그럼 누구인가? 스리나가르로 난타의 검을 찾아 떠난 이석원이 아니고 누구인가? 믿지 못할 사실 앞에 나는 입을 벌리고 벌벌 떨었다. 그럼 그가 정말 그 검의 주인인 난타란 말인가? 그런데 이상하다? 이 늙은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었단 말인가? 나는 눈을 뜨고 늙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만다라 속에 성물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

서툰 내 물음을 알아들었는지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조실이 죽기 이틀 전이었소.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조실이 만다라 속에 성물을 숨기고 있지 않겠소. 그래 내가 편지로 그 말을 했더니 당장 답장이 왔어요. 참으로 신묘하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못가 죽었으니.

-그럼 그 젊은 금어의 이름이 뭐라 하던가요? 만다라를 맡길 정도라면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이곳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소. 아디카야.

-아디카야? 그럼 그 칼?

-그렇소. 이상하게 성물 이름을 쓰고 있었다고 했소.

-그럼 그 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군요.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소. 이곳저곳 찾아다녀 보았으나 허사였소.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소만, 모르지요. 정말 그 사람이 임자인지도…. 누군가에게 들으니 그를 뉴델리 마하르토 사원에서 보았다고 합디다.

-마하르토

오오스마가 짧게 되뇌었다.

-마하르토가 어딥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뉴델리에 있는 사원입니다. 취재차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석원을 생각했다.

그를 마하르토 사원에서 보았다고? 한국 절에서? 십중팔구 낭설일 터인데….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여기 있었군 1

역전으로 나와 넷이 서성거렸다. 하나 같이 맥이 풀린 모습이었다. 왈리 슈트라 쉼라가 성물을 맡겼다는 사원으로 가 속 시원히 한 번 조사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 와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곳까지 가느냐는 말에 하나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갑시다. 정 뭐하면 이석원이 와 있었다는 곳이나 가보지요. 꿩 아니면 매라고 잡아야지요.

-그럽시다. 제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금어승의 고뇌 어쩌고 하면 또 모르지요. 대박 터질지도….

뉴델리에 떨어지자 갑자기 송 서화가가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를 잡았다.

-모르겠소. 갑자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송 서화가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찰하고 난 의사가 말했다.

-급성 장염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괜찮습니까?

-어쩐 일인가 했습니다. 어찌나 장이 민감한지 물만 갈아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기어이 용심을 부리네요. 이곳 의술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허허….

넷이 병원을 나오며 이석원의 뒤나 캐보자는 말을 나누었다. 뉴델리 마하르토 사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절 이름은 이곳 말을 땄지만 가보니 한국 절이 맞았다. 한국에 본원이 있는 말사라 철저히 한국식으로 지어진 절이었다. 행락철인데도 워낙 날이 더워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일주문을 들어서자 사천왕상이 우리들의 방문을 반겼다. 우선 원주스님을 찾았다. 객을 맞는 지객스님이 우리를 원주스님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제 오십이 갓 넘었을 동안의 원주스님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우리를 살피다가 무슨 일이냐고 하였다. 내가 기자 신분증을 내보였다. 오오스마 기자가 이석원에 관해서 물으며 그동안 심 작가가 입수했다는 사진을 내보였다. 원주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 금어의 아들이며 제자지요?



삽화 · 김상규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천추사원의 지안 금어가 살았을 때 불화 한 점을 여기서 그리게 했는데 얼마 전에 불쑥 나타났어요. 어찌나 꼴이 험한지 처음엔 비렁뱅이인 줄 알았지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터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림 솜씨가 기가 막히더구먼요.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 만다라 보수를 맡겨 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먹을 것을 내주고 방도 내어주었는데 어느 날 쌀 한 포대가 없어졌더란다. 며칠 후에 또 몇 포대가. 그래 스님이 숨어 지켜보았더니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였다.

왜 쌀 도둑질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 쌀을 없는 사람들에게 져다 주었다고 했다. 그럼 달라고 하지 왜 도둑질하느냐고 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했다. 달라고 했으면 주었겠느냐는 것이다. 그건 그랬다. 그것도 시주받은 것이라 사내 스님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신도들을 따라 시장에 간다기에 양 몇 마리를 사 오라고 돈을 주었더니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 돌아왔는데 보니 빈손이었다. 조실스님이 물었다. 양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헤헤 웃었다.

-그 돈으로 거지들 밥 좀 먹였지요.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 돈을 없는 이들의 양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고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스님에게 이곳의 사원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도저히 제 아비를 죽이고 쫓기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이곳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 다니는 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했더니 웃기만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연히 부처를 섬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여 공양해야 한다고 충고하더란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린 탱화를 손으로 가리켰다. 실천이 없는 곳에 저 탱화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그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그날 밤이었다. 사원 안이 왁자지껄하여 달려가 보았더니 거기 그가 있었다. 칼과 망치를 들고 그는 자신이 그린 성화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뒤늦게야 스님들이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는 찢어진 부처의 목을 밟고 길길 거렸다.

-이상하군요? 왜 자신이 그린 성화를 찢어 버린 것인지…?

오오스마 기자가 듣고 있다가 물었다.

원주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글쎄요. 금어가 부처의 얼굴을 찢을 때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오스마 기자가 이해가 잘되지 않는지 되물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겠지요.

-그렇다고 이미 모셔진 탱화를 칼로 찢는다는 건 좀….

내가 이번에는 물었다.

-정신이 좀 돈 것 같드먼요. 사원마다 다니며 그랬다니.

-제 아버지를 죽이고 사원마다 돌아다니며 아버지와 자신이 그린 탱화를 찢고 있다?

심 작가가 생각에 잠긴 채 중얼거리듯 물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땐 그가 살인자인 줄 몰랐을 때인데 아무튼 말들이 많았지요. 그의 행위가 없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원의 폐쇄성 때문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림이 절대의 세계를 획득하지 못했기에 칼질해 버린 것이냐 그렇게 말입니다.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오오스마 기자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다면, 이석원이란 사람의 거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주스님이 머리를 내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떠도는 자의 거처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일전에 말을 들으니 뉴델리역 부근에서 비렁뱅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아아, 참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요. 지안 금어가 이곳에 있을 때 모 절로부터 탱화 몇 점을 그려준 답례로 받은 돈으로 허름한 집을 하나 얻은 모양입니다. 지안 금어는 그 집을 아들 이석원의 이름으로 얻었다고 합디다. 자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 셋집이 필요했던 거지요. 이석원이 주로 그 셋집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들어와 세를 빼려 한다는 말이 있습디다.

-그 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그놈 여기 있을 때 집을 빼야겠다며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 주소가 어디 있을 겝니다.

-그래요?

원주스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찾기가 힘들었는지 한참 있다가 나왔다. 그는 주소가 적힌 듯한 종이쪽지를 오오스마 기자를 향해 내밀었다.

-이것이 집 주소이긴 한데, 아마 맞을 겝니다. 우선 그곳에라도 가면 뭐가 나올지….

원주스님은 말을 남긴 뒤 머리를 조아리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원주스님이 준 종이를 내려다보던 오오스마 기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디카야?

잠시 종이의 글을 읽던 그가 뇌까렸다. 내가 왜 그러느냐는 듯이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주소 아래 이석원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 괄호를 하고 아디카야라고 쓰여 있었다.

-아니 이거 왈리 슈트라 노인장을 만났을 때 성물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하던 그 그림쟁이 이름 아닙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비로소 생각난 듯이 소리쳤다.

심 작가가 오오스마 기자의 손에서 종이를 뺏어 보았다.〈계속〉

www.palgwanhoe.or.kr

2023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3
팔관회
10. 21(토)~23(월)
금정총림 범어사

준비일 21일(토)
마정수기 법회 · 선재동자 수계법회

소회일 22일(일)
호국기원법회 · 백희가무

대회일 23일(월)
호국영령위령재 · 팔관재계수계법회

턴 투워드 부산 행사
11월 11일 토요일(오전 11시)
부산시내 사찰에서 1분 동안 범종 11타 타종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
BBA 바로가기 QR코드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3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⑲ 출생의례 (上)



▶한줄 요약
불교적으로 보는 '생명의 탄생'이란, 내세의 모습을 좌우할 현세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생전의 업으로 부모 인연을 만난 한 생명이, 장차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업보를 지어갈 주체적 미래가 열려있는 것이다.

생명 기원하고 품기까지…불교적 産神 '제석신'

주체적 · 능동적 존재로서 태아

생명의 잉태만큼 신비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태 속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일을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인자가 결합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윤회 속의 한 생명 에너지가 부모와 인연이 되어 만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는 동안 서로 연기(緣起)의 관계로 얽혀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각별한 인연이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윤회하는 생명 에너지란 무엇일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업은 잠재적 에너지 상태로 축적되어 있다가, 죽으면 그 힘이 작용하여 다음 존재를 만든다. 이처럼 축적된 업을 간직하고 있는 식(識)이 윤회의 동력이 되며, 이를 '아뢰야식' 이라 부른다. 아뢰야식은 사후 중음(中陰)에 머물다가, 업력에 따라 모태에 의탁하여 다음 생을 받는 것이다.

이때 중음의 존재는 7일을 기준으로 생연(生緣) 찾기를 거듭하여 7 · 7일에 이르면 반드시 연을 얻게 된다. 중음의 존재와 부모는 연기의 원리로 맺어지니, 서로의 업이 합일하여 마치 자석이 당기듯 인연을 맺는 모습으로 경전에 묘사되곤 한다. 업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둘 중 어느 한쪽만 존귀하거나 미천할 때 등의 경우는 태에 들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새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 아버지 · 중음의 업연(業緣)이 서로 화합해야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태아는 새로운 삶에 뜻을 두고 태어날 곳을 찾아다니는 주체적 존재로, 태 속에서 부모와 상호교류하며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모태 속의 아기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아기로 인해 선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현우경(賢愚經)〉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한 관상가가 빼어난 외모의 아들을 낳은 재상에게 물었다. "이 아기를 잉태한 뒤로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오. 아내의 성품이 본래 선량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뒤부터 남의 불행을 가엾이 여기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려 했답니다." 재상의 답을 들은 관상가는 크게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아기의 뜻이라오."

'아기의 뜻' 이라 표현한 데서, 태아는 모체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아를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상호교류하는 인격체로 보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다.

무엇보다 불교적으로 보는 '생명의 탄생' 이란, 내세의 모습을 좌우할 현세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생전의 업으로 부모 인연을 만난 한 생명이, 장차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업보를 지어갈 주체적 미래가 열려있는 것이다.

'불교적 출생' 이야기

성춘향과 이몽룡은 둘 다 사월 초파일에 태어났다. 물론 '판소리 춘향전' 속의 설정이다. 이처럼 설화와 판소리 등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탄생은 대부분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극한 불공을 올리고 태어나는 것은 물론, 예사롭지 않은 존재의 탄생을 드러내고자 부처님의 탄생과 동일한 요소를 대입하는 출생 모티브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판소리 사설에는 이러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판소리에는 '심청가 · 춘향가 · 흥보가 · 수궁가 · 적벽가' 의 다섯 마당이 있는데, 그 사설이 점차 소설로 정착되면서 이를 '판소리계 소설' 이라 부른다.



출산 후에 차린 삼신상. 사진제공=국립민속박물관

'심청가' 는 불교가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작품이다. 따라서 자식을 바라는 기자불공,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 탄생 이후에 이르기까지 출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불교적 내용에 주목할 만하다. 심봉사와 곽씨 부인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대찰(大刹), 도솔천왕, 제석 등에 정성을 다해 불공을 올리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들 부부가 사월 초파일 밤에 똑같이 태몽을 꾸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불교적이다.

서왕모의 양녀인 선녀가 몽은사 부처님의 지시로 찾아왔다고 밝히며, 부인의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이었다. 심청은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올린 불공에 감응한 부처님의 점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꾼 꿈은 싯다르타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태몽과 흡사하다. 곽씨 부인이 출산한 지 7일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 또한 마야부인이 싯다르타를 낳고 7일 뒤 운명한 것과 겹쳐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흐름은 '춘향가' 에도 동일하다. 이몽룡이 광한루에서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방자에게 그녀의 신상을 묻자, 방자의 입을 통해 춘향의 출생 내력이 나열된다.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사십을 넘긴 나이에 자식을 얻고자 지리산 각 사찰을 찾아다니며 백일불공을 드리고, 초하루 · 보름마다 목욕재계하며 갖은 정성을 다해 춘향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후 이몽룡이 춘향의 나이를 물을 때, 춘향과 몽룡이 모두 사월 초파일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는 대목 또한 등장한다.

'적벽가' 에는 전쟁에 내몰려 죽음을 코앞에 둔 병사들이,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태어나 귀하게 자란 존재인지 상세히 나열하여 듣는이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적벽가' 는 중국 삼국시대의 적벽강 싸움을 각색한 작품이다. 평화롭게 살아온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운데, 지친 병사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서러움을 풀어내는 '군사 설움타령' 이 나온다.

내용을 보면, 부모가 명산대찰과 석불미륵을 찾아다니며 지성으로 불공을 올리고, 사찰에 가사와 인등 · 창호를 시주하며 자식 점지를 기원했다는 것이다. 태어난 뒤에도 7일까지 근신한 뒤, 49일째 되는 칠칠일에 큰 굿을 하고, 백일에는 큰 잔치를 열었으며, 돌이 되었을 때 큰 불공을 올렸다는 점층적 방식으로 마무리하였다.



민간에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한 제석신 / 여수 흥국사 제석도. 사진제공=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러한 내용이 당시 민중에게 널리 향유되었던 것은, 자식을 바라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불공이 민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울러 각종 설화의 구성에서 비범한 존재의 출생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석가모니의 탄생담이 이상적 모델이 되어 신성성과 위대함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삼신할미와 제석의 민속

민간에서는 출산을 관장하는 산신(産神)이 있다고 믿어, 그 신을 삼신 · 삼신할미 · 삼신할머니라 불렀다. 생명의 잉태와 관련된 신이기에 여성이라 보았고, 집안의 여성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여성 조상을 통칭하는 할머니로 모심으로써 아기를 잘 돌보아주리라 여겼던 셈이다.

일찍이 이능화가 지적했듯이, 이때의 삼신은 태(胎)의 우리말인 '삼' 에서 나온 것으로 탯줄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전에는 탯줄을 삼줄이라 부르고, 탯줄을 자른다는 말을 '삼가른다' 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삼신을 삼신(三神)이라 보거나 '삼신=산신(産神)' 으로 발음하기도 하나 모두 본래의 뜻과는 다르다.

놀라운 것은 이 삼신의 자리에 제석신이 좌정해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호법선신인 제석천(帝釋天)은 민간신앙에 다양한 영역의 신으로 수용되었다. 제석은 고려 때부터 단군신화에 부계천신(父系天神)으로 등장하더니, 무속에서는 무조(巫祖)의 성격까지 부여하기 시작했다. 후대로 오면서 하나이던 제석신이 셋으로 분화되기에 이르는데, 무속신화인 '제석본풀이' 에서 당금애기와 천신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이 곧 삼불제석(三佛帝釋)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제석신이 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높은 위상과 함께, 민간에서는 '三佛' 을 '三神' 이라 즐겨 불렀고 '産神' 을 '三神' 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보인다. 삼신할미를 부르는 다른 말도 '지앙님 · 삼신제왕 · 세준할머니 · 불도할망' 처럼 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앙' 은 제왕의 방언으로 제석을 뜻하며, '세준' 은 세존의 방언으로 세존과 제석이 다르지 않다.

무당을 청해 아기를 위한 굿을 할 때도 주로 제석을 모시는 제왕맞이나 세존굿을 하게 된다. 제왕맞이에서 무당이 늘어놓는 사설을 보면, 태중 열 달 동안 천지신명과 칠성 · 삼신제왕 · 제석 등이 월별로 아기 돌보기를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삼신제왕과 제석은 하나의 존재이자 같은 역할을 지녔지만, 민간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많은 신격이 등장할수록 좋을 뿐, 직능을 구별할 필요는 아예 없는 것이다.

기도처에 모신 삼불제석 상을 비롯해 무속화(巫俗畵)에 표현된 제석은 장삼에 고깔을 쓴 스님의 모습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제석본풀이〉에 나오는 '중타령' 을 보면 "우리 중상이 내리실 때 귀한 애기를 기르실 적에/ 짜른 명을 길게 잇고 기나긴 명을 허리 삼아/ 무쇠목숨에 돌끈 달고 동방삭에 명을 주며…"라는 내용이 있다. '중' 의 높임말로 쓴 '중상' 또한 제석을 뜻한다. 제석이 아기를 내릴 때 짧은 명을 길게 이어주고, 무쇠같이 질긴 목숨에 돌끈까지 달았으니 질긴 수명을 누리게 될 터이다.

삼신은 대개 안방에 모시는데, 중부지역에서는 주머니에 쌀을 넣고 한지로 고깔을 씌워 '제석 주머니' 라 부르며 매달아둔다. 출산 때 그 앞에서 아기와 산모의 무사함을 비는 것은 물론, 명절 · 생일 · 제사 때도 음식을 차려놓고 축원을 한다. 전남 강진에서도 주머니에 쌀을 넣어 걸어놓고 세존으로 모시는데, '세존 공들이기' 라 하여 일곱 포기의 벼 알갱이를 훑어 세존 주머니에 갈아 넣고, 묵은 것은 탁발승에게 건네주면 좋다는 풍습이 있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집안 곳곳을 지키던 가신(家神)이 사라지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문제를 전담하면서 삼신의 의미도 퇴색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삼신할미가 곧 제석이자 세존이었던 우리에게 삼신할미는 자비로운 불보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법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3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3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5일(일) 오전 10시 40분
◈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
◈ 내 용 : 움직임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⑲ 석굴암의 비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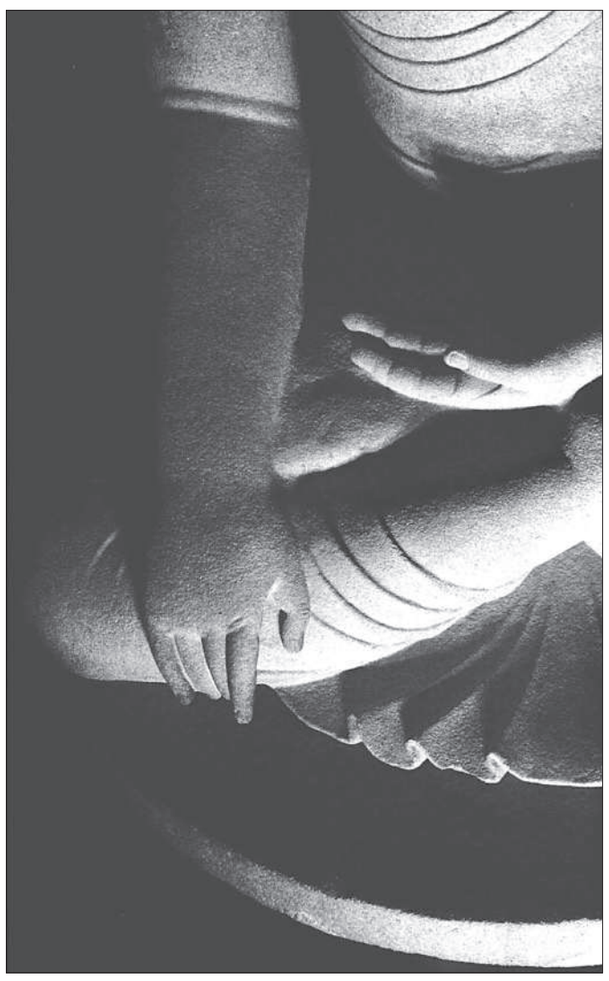
▶한줄 요약
12연기를 통찰한 그 곳, 즉 근본 무명을 통찰한 그 곳에 '대정각(大正覺)'이 있다. '깨달음과 합일하신 모습'은 석굴암의 본존상 '석가모니대각상'으로 조형화되었다.

깨달음과 합일된 모습, 불상으로 화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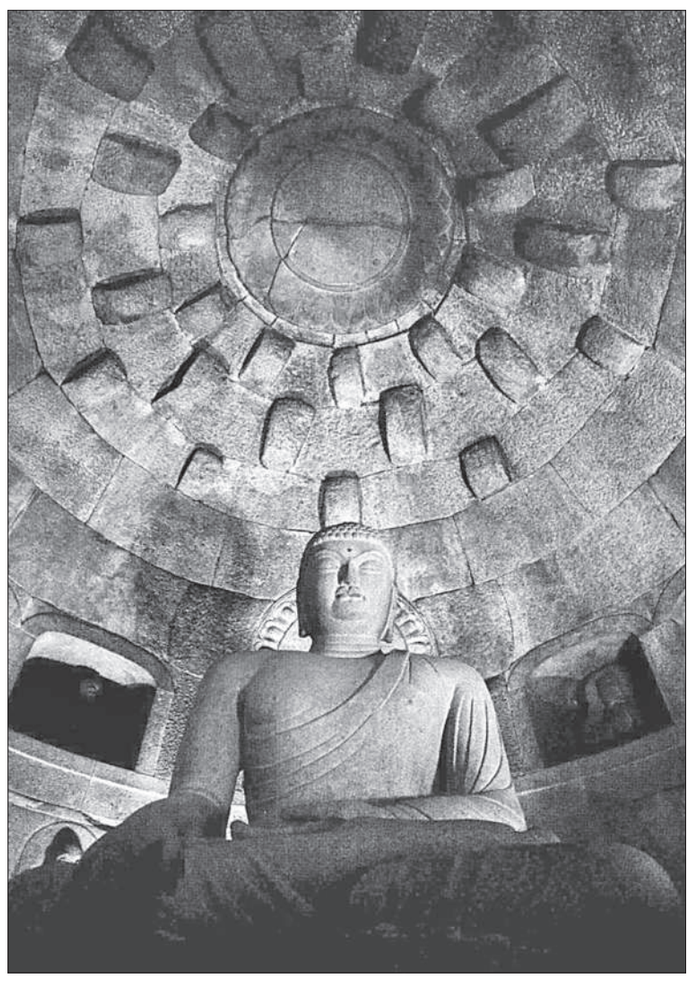
석굴암의 본존불인 '석가모니대각상' (또는 석가모니성도상)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대정각(大正覺,큰 깨달음 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모습이다.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기까지 총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무수한 전생에서부터 붓다는 정진해 왔다. 특히 가까운 전생에서는, 아라한이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 6바라밀의 공덕까지 갖추는 데 여념에 없었다.

내게는 믿음과 노력과 지혜가 있다. 어찌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몸과 피는 말라도 지혜와 하나 된 마음은 더욱 편안할 것이다.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너의 첫째 마군은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이며, 셋째는 굶주림이며, 넷째는 집착이다. 다섯째는 권태와 수면이고, 여섯째는 공포이고, 일곱째는 의심이며, 여덟째는 겉치레와 고집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너의 마군이다. 나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굴욕적으로 사느니 싸우다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숫타니파타〉 중에서



도판① 항마촉지인의 수인. 오른 손으로 땅을 가르켜, 마왕과 마군을 제압하는 손 모양.



도판② "묘한 이치를 끝까지 보고 '커다란 깨달음의 방' 으로 들어가셨다." 깨달음의 방은 둥근 여의주의 건축(석굴암)으로 조형된다.

'에고'의 일어남이 허공 가린다

"나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굴욕적으로 사느니 싸우다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며 이번 생에는 목숨마저 버릴 각오로 석가모니 붓다는 출사표를 던진다. 수십 수만 수억 년의 생을 윤회하면서 붓다께서 찾아낸 '완전한 깨달음' 에 도달하는 '완전한 방법' 은 무엇이었을까. 그 분의 깨달음의 단계를 따라가 보자.

먼저, 완전한 깨달음 또는 완전한 열반(빠리닙바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붓다께서 위에 인용한 문구에서 언급하셨듯이 이들은 욕망, 혐오, 굶주림, 집착, 권태, 수면, 공포, 의심, 겉치레, 고집이다. 나에게 들러붙는 이득과 명성, 존경과 명예, 칭찬과 경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군이다. 이러한 무수한 마군들의 밑바탕에는 마왕이 있는데, 마왕은 '나' 라는 아상(我相) 또는 에고(ego)이다. 깨달음의 청정한 바탕자리는 일순 에고에 가려져 버린다. 에고라는 마왕은 무수한 마군들을 불러들인다. 에고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겨서, 우리가 체험한 가장 숭고한 깨달음의 순간마저 '대상화' 해버린다. '하나' 가 된 합일의 상태마저, '내' 가 체험한 '대상' 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에고의 일어남으로 인해 다시 '나와 대상' 이라는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 버리고, 우리는 다시 에고의 감옥으로 떨어진다.

위빠사나 '혜(慧)'의 위대함

붓다는 당시 유행했던 기존 수행법인 사마타 (선정) 수행을 통해 (선정 수행의 최고 경지인)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까지 체험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존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아차린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없는 붓다가 깨달은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혜' 라는 통찰지의 발견이다. 붓다의 실참 수행법의 핵심은 '정(定)+혜(慧)' 이다. '정' 을 바탕으로 '혜' 를 쏜다. 즉, '정' 이라는 밀도 높은 고요한 경지를 바탕으로, '혜' 라는 통찰지를 내 존재에 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총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대상(덩어리)를 향해 총알을 발사하는 것. 총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정(사마타 수행)' 의 훈련이라면, 과녁을 향해 발사하는 총알은 '혜(위빠사나 수행)' 이다. 날카롭고도 밀도 높게 연마된 '혜' 의 총알은 덩어리인 대상을 분해하려 박살낸다. 그러면 바탕자리에서나, 이 존재의 안팎으로나 공空이 드러난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실참법의 요지인 '아나빠나 삿띠' 는 '정과 혜' 를 동시에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정이라는 바탕에 혜를 장착하니, 존재는 하릴없이 12연기로 분해되어 해체되어 버렸다. 이것이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석가모니 붓다를 위대하게 하는 실참법이다.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 또는 '지관겸수(止觀兼修)' 라고 한다. 붓다 직설(直說)의 실참법을 언급한 초기 경전으로 〈디가 니까야〉의 '대념처경' (D22) '대인연경' (D15), 〈맛지마 니까야〉의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 (M118), '몸에 마음챙기는 경' (M119) '마음챙김의 확립경' (M10) '바른견해경' (M19) 등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무상정등각을 위한 수행을 통해
> 12연기와 무아를 깨달으신 붓다
> 근본 무명을 통찰한 그 곳에는
> 붓다가 이루신 '大正覺'이 있다

붓다 깨달음의 생생한 과정

그러면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난 붓다의 생생한 깨달음의 체험과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며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는 정념(正念)"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자, 붓다는 그 상태에서 먼저 자신의 전생을 돌아본다. 한 번 · 두 번 · 세 번 · 네 번, 수백 수천수만 번의 삶.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들을 여실하게 본다. 그러는 동안 무명은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으나, 그러한 기쁨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아갔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이다.

두 번째 지혜를 증득했을 때는 그러한 부동의 마음으로 뭇 중생들의 삶을 통찰한다. 우리들이 천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행복하고 더러운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업(業)의 인과(因果)라는 사실을 통찰하여 알게 된다. 세 번째 지혜는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성제(四聖諦)를 보게 된 것이다. 일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고' (일체개고 · 一切皆苦)임을 보고, 그것의 원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훤히 보게 되니, "내 마음은 관능적인 삶을 동경하는 망상에서 벗어났다.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풀려났으며, 무명에서 비롯된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윤회는 끝났다. 더 높은 삶이 성취되었다.(〈중부경전 36〉중에서)라고 전한다.

첫 번째 지혜는 초경(初更)에 일어났으며 이를 숙명통(宿命通)이라 하고, 두 번째 지혜는 이경(二更)에 일어났고 천안통(天眼通)이라 하며, 세 번째는 삼경(三更)에 일어났고 누진통(漏盡通)이라고 한다. 또는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의 경지를 합해 숙명지(宿命智)라고 하고, 세 번째를 누진지(漏盡智)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대大 지혜로 스스로 깨어나는 과정이 새벽 동틀 무렵으로 이어진다. 초저녁에서 한밤중 그리고 새벽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깨달음의 여정이다. 붓다는 누진지를 체득할 때 '12연기' 를 본다. 존재의 고통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거슬러 내려오는 '12연기의 순관과 역관' 을 하며, 존재의 생멸의 과정을 여실하게 통찰한다. 그리고 궁극의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신다.

이렇게 무상정등각의 대지혜에 이르는 수행은 '정념' 에서 시작한다. 정념은 팔리어 '삿띠(Sati)' 에 해당하고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으로 번역된다. 경전에는 "정념(正念) 속에서 정사유(正思惟)한다"라고 나온다. 더욱더 깊은 통찰지로 들어갈 때마다 '바른 사유' 즉 정사유(正思惟)의 과정이 동반된다. 정사유의 '사유' 는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고 그것을 '통찰한다' 라는 의미이다. 그 원인을 '꿰뚫어 보는 것' 이지 사념적으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다. 정념과 정사유의 방법을 통해 존재라는 덩어리의 분해의 분해를 거듭한 끝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12연기)는 천하에 드러났고 마침내 '무아(無我)' 라는 진리를 밝혀내셨다.

"늙고 죽음(老死)은 남(生)에서 생긴다. 남은 무엇을 인(因)으로 하는가? 이는 '유(有)의 업(業)'에서부터 왔다. 이제 '유(有)의 업(業)'을 관찰하매 이는 '취(取)'에서 생겼고, 취는 '애(愛)'로써 인을 삼고, 애는 '수(受)'에서 생기고, 수는 '촉(觸)'을 인으로 삼고, 촉은 '육입(六入)'에서 나고, 육입은 '명색(名色)'에서 일어나니, 명색은 '식(識)'에서 말미암고, 식은 '행(行)'에서 나오고, 행은 '무명(無明)'을 바탕으로 하네."

12연기를 통찰한 그 곳, 즉 근본 무명을 통찰한 그 곳에 "대정각(大正覺)" 이 있다. "묘한 이치를 끝까지 보고 '커다란 깨달음의 방' 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전한다. 바로 '깨달음과 합일하신 모습' 이다. 이 모습은 석굴암의 본존상 '석가모니대각상' 으로 조형화되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안의 Media In Buddha 25 연극 〈지상의 여자들〉



▶한줄 요약
연극 〈지상의 여자들〉은 무대에 세워진 벽과 배우들의 몸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우리에게 화쟁과 공존의 가치를 묻는다.

SF적 은유로 화쟁의 가치를 묻다

많은 사람들이 압박하는 사이에서 홀로 몰리던 사람이 아주 절박한 표정으로 달려 나와 나누어 주며 동참을 호소하는 이런 유인물을 받았다.

"고통을 주는 존재는 누구든 사라질 수 있어요. 남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는 누구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남자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다 사라지고 나면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 여자가 사라질 겁니다.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 여자가 사라지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이 사라질 겁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이 사라지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의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한 게 보여지면 그게 누구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응? 이게 무슨 소리지? 거꾸로 아니야? 남자들이 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 여자들인데? 그렇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연극이다.

올해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2023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연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 극단 '돌파구' 의 〈지상의 여자들〉이라는 SF 연극에서 한참 극중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서 몰리고 몰린 등장인물이 객석으로 뛰쳐나와 관객들 사이를 누비며 나누어준 유인물에 담긴 호소문이다.

박문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연극은 원래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2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온전한 무대를 다 갖추기 전의 과정극인 '트라이아웃' 낭독극으로 먼저 관객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때 창작극의 과정을 함께 한다는 기대감으로 예매를 하고 기다렸으나 볼 수 없었다.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연극이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NS에서, 뉴스에서, 또는 가족과 통화를 하다가.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지척에 있는 이태원에서.

2022년 10월 29일 밤, 원래는 축제였어야 할 자리가 참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다.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리는 켈트 족 문화가 가톨릭 종교와 결합해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이 되고, 지역적 전통이나 종교적 제의와 상관없이 재밌는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된 할로윈이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내세우는 지역 대표 브랜드 페스티벌이 된 자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2023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연작 연극 〈지상의 여자들〉 한 장면.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연작
박문영 작가 장편소설 원작으로
도시 '구주' 속 혐오, 갈등 다뤄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목숨이 사라졌고, 여러 일들이 멈췄다. 연극도.

이제 세상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멈췄던 연극은 그때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 낭독극이 아닌 온전한 무대 공연으로 관객을 만났다. 공연이 지연된 만큼 무대는 더 치열했고, 치열한 무대보다 세상은 더 험악해진 상황에서.

하얗게 비어있는 벽 안에 펼쳐지는 〈지상의 여자들〉은 서울에서 서너 시간 거리에 있으리라고 설정된 '구주' 라는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결혼 이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작가도 있고, 평생 주정뱅이 남편에게 맞고 살아가면서도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친정 어른들에게 단속 당하며 살아온 중년 여성도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 그 결혼이주여성들을 며느리로 맞은 사람들도 있고, 연애들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세상이다. 남자랑 여자랑 걸핏하면 다투게 되는 것까지.

그 도시에는 강도 있다. 오염된 물에 사는 자라가 산 채로 썩어가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강. 동물원도 있다. 자연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잡아다가 평생 철창 안 시멘트 바닥에 살게 하며 사람들이 재미 삼아 찾아와 구경거리로 가두어 두는 생명의 감옥인 그런 동물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자들이 사라진다. 어머니 앞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를 두들겨 패던 남자가, 술에 취해 딸 앞에서 아내를 윽박지르던 남자가, 돈으로 성을 사면서 성노동자 여성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려던 남자가. 그 남자들은 여자를 상대로 화를 내다가, 주먹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빛으로 사라진다. 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참 믿기 힘든 현상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겨졌던 이 현상이 거듭되면서 그 현상의 원인이 분노와 폭력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자들이 변해간다. 당장 사라진 남자 때문에 걱정도 하고 신고도 하지만, 점점 나쁜 남자들이 사라져가니 기꺼워하는 여자들이 도시의 주류가 된다. 분노하는 남자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자 적어도 이 도시에서 만큼은 남자들이 조심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좀 안전해진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노, 새로운 폭력이 드리워진다. 사라진 남자들을 걱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간 남자를 기다리거나, 여전히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여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무대를 지배하는 배우들은 원래 남자였거나, 남자 역할이었거나, 동물이었던 인물들까지 모두 여자가 된다. 그때 한 여자가 무대를 벗어나 객석을 가로지르며 바로 글머리에 인용한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관객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세상을 원한 거였냐고 묻는다.

마침 일 때문에 서울에 갔던 그 여자의 남편이 돌아온다. 하필 결혼 생활 내내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며 닦달을 하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환대하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남자의 태도 앞에서 여자가 돌아선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아내의 거부 앞에서 그 남자는 화를 내지 않으려 한다. 화내는 대신 웃으려 한다. 커다란 무대를 분노가 아닌 오직 '웃는 모습' 으로 꽉 채우려 안간힘을 쓴다. 그 남편의 웃음은 기의가 담기지 않은 완전한 기표로서의 표정이다.

흔하디 흔한 폭력과 혐오를 초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기괴하게 펼쳐 보이는 〈지상의 여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거울이고, 무대 안의 인물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뭇 중생이다. 배우들은 고정된 한 인물, 한 역할이 아니라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동물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면서 내가 되고 당신이 된다.

분노와 혐오가 빚어내는 무대는 구주라는 가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눈 먼 자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성소수자들과 장애인들을 밀어내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장벽이기도 하고, 이태원에서 희생된 청년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던 혐오의 광장이기도 하고, 인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지금의 지상 지구이기도 하다.

딱 이태원 참사 즈음이었던 2022년 11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자비와 화쟁으로' 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어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평등과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반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화쟁위원회는 '모든 것은 존엄하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화쟁의 힘' ,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 '모든 중생은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라는 주제로 불교가 사회적 의제에 방향을 제시해 책임 있는 종교로서 공신력과 위상을 높이는 길을 제시했다.

연극 〈지상의 여자들〉은 무대에 세워진 벽과 배우들의 몸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우리에게 묻는다. 화쟁과 공존의 가치를.

〈영화평론가〉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 · 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 2024년 1월 14일 ~ 2024년 1월 23일
▶ 2024년 2월 13일 ~ 2024년 2월 22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4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동 참 금 : 259만원~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 2023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 · 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선…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㊳ 삼마제를 닦는 세 가지 준비

〈원문〉 "아난아, 네가 지금 부처님의 삼마제를 닦아 증득하려면 근본 원인이 되어 본래 있던 어지러운 생각(亂想)에 세 가지 점차를 세워야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해 없앨 수가 있느니라. 마치 그릇에 묻은 독밀(毒蜜)을 제거하려면 끓는 물이나 재, 향으로써 그릇을 씻고 나서야 감로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세 가지 점차는 첫째 수습(修習)이니 그 조인(助因)을 제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수(眞修)니 그 정성(正性)을 도려내는 것이며, 셋째는 증진(增進)이니 현업(現業)을 어기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조인(助因)인가 하면 아난아, 세계 12종류의 중생이 먹지 않고는 온전하지 못하나니 사식(四食)을 의지해 있으니 이른바 단식(段食)과 촉식(觸食)과 사식(思食)과 식식(識食)이니라."

〈강설〉 〈능엄경〉 8권에 들어가면 삼마제를 닦아 증득하려면 세 가지 준비과정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것을 삼점차(三漸次)라고 하는데 수행 계위(階位)에 해당하는 것으로 〈능엄경〉에서는 이 삼점차를 합하여 60계위를 말하고 있다. 수행의 계위(階位)를 범부, 현인, 성인의 과정을 거쳐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52로 설명하고, 십신(十信) 앞에 간혜지(乾慧地)를 두고 십회향 다음에 난(煖), 정(頂), 인(忍), 세제일(世弟一)의 사가행(四加行)을 두어 57위로 벌리고, 간혜지 앞에 삼점차를 붙이면 60위(位)가 된다.

〈능엄경〉에서는 중생의 종류를 12류로 구분하는데 이 모든 종류의 중생이 모두 전도에서 비롯되고 난상(亂想)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밝힌 뒤 이 원초적 난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삼마제를 닦는 것이라 한다. 삼마제는 삼매(三昧)를 달리 말하는 것이고 생각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定)을 말한다. 능엄이라는 경명이 수능엄의 줄인 말로 선정 이름이다. 이 선정을 닦으려면 필수적으로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와주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 (제기조인(除其助因)은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마늘, 파, 부초, 달래, 흥거의 다섯 가지 야채다. 흥거는 인도에만 있는 것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채소다. 이들 오신채는 날로 먹으면 진심(嗔心)을 조장하고 익혀 먹으면 음심(淫心)을 조장한다고 한다. '그 정성을 도려낸다' (刳其正性)는 것은 청정한 계율을 지켜 살(殺), 도(盜), 음(淫), 망(妄)을 끊으라는 것이다. 이른바 바라이(波羅夷) 죄를 범하면 수능엄정(首楞嚴定)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술도 마셔서는 안 되며, 오계(五戒)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고(刳)자는 도려내어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현업(現業)을 어긴다는 것' (違其現業)은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짝하지 않아 신(身), 구(口), 의(意)를 통해서 일어나는 십악(十惡)을 완전히 봉쇄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계(三界) 중생이 먹는 음식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도 특이한 내용이다. 단식(段食)은 음식이 모양이 있어 씹어 먹는 것을 말한다. 욕계 중생이 대부분 단식을 하는데 물을 마시고 밥과 반찬을 먹는 등의 식사 방법이 단식에 속한다. 촉식(觸食)은 귀신이 먹을 것을 말한다. 입 안에 넣어 씹어 먹지 않고 만져서 먹는다는 뜻이다. 사식(思食)은 색계(色界) 사선천(四禪天)의 음식으로 생각으로 먹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희선열(法喜禪悅)로 배가 불러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음식을 생각하는 그 자체로 배가 불러지는 경우도 사식(思食)이다. 식식(識食)은 무색계(無色界) 중생들의 경우로 오음(五陰)이 다 있지 않고 식(識)만 있으므로 저절로 식식(識食)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계 중생과 12류 중생이 모두 밥을 의지해 산다고 하였다. 중생이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에너지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먹지 않고 굶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런데 의외로 단식(段食)을 하던 중생이 때로는 천공(天供)을 받아먹었다는 설화도 있다. 천상의 음식을 가져다주어 받아먹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선정 속에서 사식(思食)을 수용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㊳ 무상

마음도 사물도 없으니

여섯 감각기관이 없는 사실을 찾아내어 발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한, 시작 없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 알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의 뇌는 분석된 정보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것을 찾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인식 작용 때문일 것이다.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질을 발견하여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일은 그런 물질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의 결말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 보는 일이지, 행위의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멸하는 동안 충분히 많은 행위로써 행위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행위 때문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행위의 반복이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행위로써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추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오직 멈추는 시도만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물질의 유무에서 허덕이고 헤매는 일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물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물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한 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러다 그것이 가정한 결과로 도출되기도 하고 의외의 결과를 내기도 한다.

수행자는 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을 분석하고, 과학자는 밖의 사물을 알기 위해 사물을 분석한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과 사물이 없다는 앎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지만 그 사실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가 있는 한 그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가 없으면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르게 나타난다.' 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이 언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앎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보편적인 것이지만 오온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다. 앎과 오온은 이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앎은 이 두 단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오온은 세상에서 배운 언어 그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다. 물질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다. 물질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물질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물질을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물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또 물질이 없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나에게만 보이지 않고 다른 이에게는 보인다면 그것은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유상하다, "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텅 비게 만드는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이 의식의 조작인 줄 알면, 우리는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과거의 인연에 의해 움직인다. 주어야 하는 조건은 주는 인연으로 만나게 되고, 받아야 하는 조건은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만나게 된다. 인연의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 세상은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개입성을 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부처님은 사물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연기로 말씀하셨다. 이것에 의존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저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의존성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사실적인 존재성이 있을 때 의존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물질의 존재성이라는 것이 오직 나의 착각에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은 유상한 것도 없고 무상한 것도 없고 텅 빈 것도 없다. 오직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짓는 불필요한 생각들이다. 그러니 보고 들리는 그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생명 경로 자극하는 나선호흡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㊳ 배숨 · 나선호흡

배숨호흡

배숨호흡은 아랫배를 활용해서 숨을 쉬는 방법이다.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고 배로 숨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배숨호흡을 할 때는 코 호흡의 느낌이 끊어져야 한다. 연습을 할 때는 공복에 하는 것이 좋다. 깃털을 코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천천히 숨을 빨아들인다. 코로 숨을 들이쉬지 말고 배의 유격으로 숨을 빨아들인다. 이때 후각신경이 자극되지 않아야 한다. 교감신경이 자극받지 않아야 되고, 이다와 핑갈라가 촉발되지 않아야 한다. 하단전에 집중하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 하단전 부위에 분포된 미주신경의 말단과 천골 부교감신경의 말단을 함께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소량의 호흡으로 미토콘트라아의 기능을 극대화한다. 세포 내 ATP 생성이 촉진되고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된다. 인체 자기장의 폭이 넓어진다.

나선호흡

나선호흡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생명 경로를 자극하는 호흡법이다. 나선호흡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원하는 기점까지 신경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무념을 증득하는 것이다.

나선 호흡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뇌와 척수이다.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교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중뇌, 교뇌, 연수를 뇌줄기라 한다. 척수는 경수, 흉수, 요수로 이루어져 있다. 요수 아래로는 천수라 한다. 육체 생명의 주체가 뇌와 척수이다. 무념의 증득은 신경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간 기둥 경로가 억제되면서 무념이 증득된다. 나선호흡으로 두정부피질이 자극되면 가바가 분비되면서 신경이 억제된다. 가바의 분비 범위를 들숨으로 조절하면서 무념을 증득한다. 나선호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백회 기점을 열어야 한다. 백회 기점을 열 때는 엄지손가락의 굴곡과 코호흡의 감각, 백회의 살갗 감각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을 굴곡시키면 후각신경과 상악신경이 함께 반응하고 미심과 두정부 피질이 함께 반응한다.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미심의 느낌을 관찰한다. 미심의 느낌과 백회의 상태를 함께 느낀다. 백회에서 일어나는 자극감을 느낀다. 코숨호흡과 배숨호흡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후각신경과 두정부피질의 자극을 함께 인식한다. 두정부피질에서 생겨나는 나선의 회오리를 인식한다.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백회 기점이 열린 것이다.

미심과 두정부피질은 살갗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면 그 경로가 함께 자극된다. 백회가 열리면 나선호흡으로 피질 경로 전체를 억제시킨다. 그런 다음 그 경로에서 무념을 인식한다. 백회의 나선 회오리를 머릿속으로 빨아들여서 시상까지 끌어내린다. 이때는 백회 부위가 진공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백회에 진공이 생겨서 그 공간으로 나선 회오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백회에서 시상까지 기둥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신경 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뇌피질 경로는 깔때기 형태로 모아져서 시상으로 내려온다. 백회로 나선 호흡을 하게 되면 이 경로가 자극되면서 신경 억제물질이 분비된다. 그러면서 무념이 생겨난다. 나선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서 신경이 억제된 느낌을 척수말단까지 끌어내린다. 뇌와 척수를 연결하고 있는 억제된 느낌을 주시한다. 나선 호흡이 익숙해지면 호흡법만으로도 12개의 기점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2월 7일 출발~12일 도착 (5박6일)

동참금 | 259만원

일 정 | ▶1일 : 미얀마항공편으로 인천-양곤
▶2일 : 양곤-바간
▶3일 : 바간-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
▶4일 : 만달레이-헤호
▶5일 : 헤호-양곤
▶6일 : 양곤-인천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 (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 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 (12월 26일 출발-1월 4일 도착)

인도 보드가야에서 달라이라마 법문이 23년 12월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봉행됩니다.법문과 더불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에서 기도와 영축산등 성지순례를 하는일정입니다. 동참금 | 28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5호 | 17 | 전면광고

도둑의 침해를 당하면 그 괴로움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근이라는 도둑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그 해는 지극히 무거울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토 굴 안 내

- 진주시 정촌면 무선산로 332 약수암
- 임대시 전세 일천만원
- 권리비 및 시설비 없음
- 매매시 주인 직접

010-4999-56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파주 극락사
- 사찰 전세 : 2천만원 (월세) 30만원
- 사용 평수 : 약 500평
  법당 : 30평, 방 4, 화장실 2
  차실 : 20평, 식당 60평
- 위치 : 파주, 문산 답사 후 결정
- 자연 약수 사용
- 주차 : 30대 가능

주지스님 010-4069-5315

양평 토굴 안내

- 문중땅 700평
- 사용 : 년 30만원, 매매 8900만원
- 법당, 요사채, 하우스 3동, 텃밭, 유실수다량
-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편은 산이며 주차는 7~8대
-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용한 곳입니다.

010-4876-1058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2천만원

010-6898-9114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 근교
- 2층 건물 : 2층 30평
- 2층 옥상 산신각 2평 공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 방사 1, 공양간1, 욕실겸화장실
- 보증금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0-4799-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법당, 공양간, 스님 거실, 주차장, 창고, 산신각
- 평수 : 253평 (2택지로 나뉘어 있음)
- 금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 진주 시내에서 5분 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가깝고 버스 다니는 길 있음

055-746-258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스님 건강상, 교통 아주 편리함

010-4535-5086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굿당해도 좋은 자리
- 가액: 3억 6천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 68평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5천만원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입구 3층 (30평) 전철역 10분
- 1천만원 – 월세 130 (부가세별도)
- 시설비 2천만원
- 건물 : 법당, 방1, 공양간, 욕실, 난방도시까스 (민원없음)

010-2855-9899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공주 봉황동 건물매매
- 건물 53평, 주방1, 방2, 독방1
- 토지임대 월5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010-4428-730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55호 | 18 | 전면광고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문수사리정률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그린그린심리치유 상담센타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증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2011-12-82948호 사업자등록번호576-10-0099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제 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탈골교정, 구안와사 상담후 치매 완치 100% 세계 최초 치매완치(完治)전문의 [업무 오전 10시~오후 4시]

061-852-1003 / 010-2159-300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D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사찰모집

반려동물 천도재를 해주실 사찰을 모집합니다.
전국지역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천도재 전문 – 행복의 나라

031-751-7942 / 010-3712-3088

비구니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연령무관)

010-5049-1533

하나힐링 광물찜질

모든 병은 독소, 염증, 혈관막힘이 원인
1억 파장 양자 음이온 토로말린 파장
암개선, 간, 신장, 척추, 허리, 무릎, 피부, 만성질환, 모든 환자에게 도움

- 1회 15,000원 대림역 10번 출구
- 자연치유 무료 상담

010-4633-8864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수처작주
〈隨處作主〉

하늘엔 뭉게구름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이
이유가 있고

하늘 아래 오래된 부처님 집엔
석탑이며 풍경이며 단청이며 바람 한 점까지
또한 각자의 이유가 분명한 오늘

대웅전 부처님은 흔들림 없이 계시고
손바닥만 한 산새 하나가
기가 막힌 자리에 한 수 둔다
아, 저 한 수면 되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⑰ 뽕잎차

뽕잎, 당뇨·고혈압·중풍 등에 효과

〈신농본초경〉에서는 2200년 전부터 누에의 먹이인 뽕잎을 사람이 섭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 중기 문인인 서하(西河) 임춘(林椿)의 〈서하집〉에서는 "뽕나무로 만들 활로 쑥으로 만든 화살을 사방에 쏘니, 남자아이의 기백은 북극성처럼 크다네"라고 하여, 사내아이를 출산하면 뽕나무 활과 쑥 화살을 쏘았다는 기록이 있다.

뽕의 꽃말은 '지혜', '못 이룬 사랑'이다. 다른 이름은 잠엽(蠶葉), 경상상엽(經霜桑葉), 새뽕나무, 오디나무 등이며, 생약명은 뽕나무 잎은 상엽(桑葉), 뽕나무 뿌리껍질은 상근백피(桑根白皮), 뽕나무 가지는 상근(桑根), 상지(桑枝)라고 한다.

원산지는 중국 북부, 인도 등이고, 우리나라는 전국의 산기슭이나 마을 부근에서 자생하거나 심어 가꾼다. 이용부위는 잎, 뿌리, 줄기, 열매이며, 차 또는 약용한다. 뽕잎은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리고 난 후에 따면 약효가 좋다고 한다. 이른 봄의 어린잎은 연해서 제다하면 바다의 김을 먹는 것 같은 식감이 있다.

성분과 약성

열매인 오디에는 당분, 탄닌, 사과산(malic acid), 레몬산(citric acid), 비타민B_1, B_2, C, 카로틴(carotene), 리놀산(linolic acid), 스테아린산(stearic acid), 올레인산(oleic acid), 감마-아미노뷰티르산(Y-aminobutyric acid: GABA) 등이 있다.

뽕잎에는 루틴(rutin), 이노코스테론(inokosterone), 엑다이스테론(ecdysterone), 트리테르페노이드(triterpenoid)계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등이 있다.

뽕잎은 성질이 차고, 맛이 쓰고 달다. 뿌리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뿌리껍질, 열매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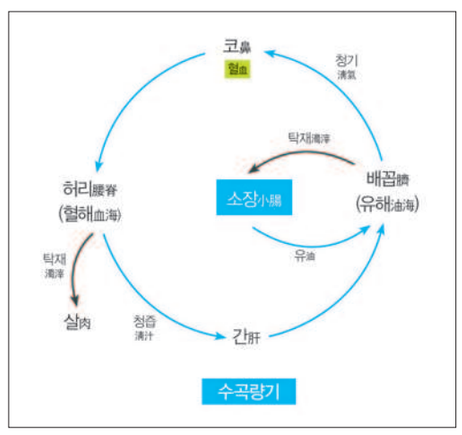
뽕잎은 당뇨, 고혈압, 습진, 두통, 중풍 등에 효과가 있다. 루틴(rutin)은 뇌 모세혈관의 발달과 당 대사의 활성화 및 혈압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 혈당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당대사에 도움을 준다.

마음 · 기작용

뽕잎은 폐(肺)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뽕잎은 혈당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당대사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혈해는 피가 사는 집으로 맑은 즙이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뽕잎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뽕잎에 다량 함유된 루틴 성분은 뇌 모세혈관의 발달과 당 대사의 활성화 및 혈압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에서 허리에 있는 혈해의 맑은 즙을 간이 빨아들여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이다.





뽕잎은 습진, 두통 등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에서 두뇌에 있는 니해(膩海)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뽕잎은 니해의 탁재(濁滓)가 피부를 보익하고, 두뇌의 기운을 잘 흐르게 하는 것이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으로 폐당(肺黨)의 수곡온기가 적은데, 뽕잎은 기본적으로 수곡온기의 기 흐름을 잘 흐르게 한다.

제다 및 음용

뽕잎차 제다는 ① 뽕잎은 5월 중순경의 연한 잎이니 첫 서리를 맞은 잎을 채취한다. ② 깨끗이 씻고, 1.5cm로 잘라놓은 뽕잎을 살청한다. ③ 유념을 한 후 고온에서 덖고 식힘을 반복한다. ④ 중온에서 가향과 건조를 하여 완성한다.

뽕잎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뽕잎차와 구기자차를 블렌딩한다. 구기자는 항산화 성분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며, 혈압을 내리게 한다.

뽕잎차 블렌딩은 당대사의 기능을 좋게 하여 혈당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또 해독작용과 항산화 작용으로 독소와 활성산소를 배출시킨다. 뽕잎차 1.5g, 구기자차 0.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과다 음용 시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하루 1~2잔 정도가 좋다.

사상인별 시음

태음인이 마셨을 때, 뽕잎차의 건향에서는 김에서 나는 향이 나고, 우림한 차에서는 생 풀향과 구수한 향이 났다. 시음에서는 맛은 달고 구수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입 안에서는 차가 가볍게 느껴졌다.

또 다른 태음인은 뽕잎차로 먹었을 때, 어린잎은 김 맛이 나면서 고소하였다. 약간 잎이 큰 것은 맛이 진하게 다가왔다. 2차 시음에서는 목이 잠기는 경험을 하였다. 함께 시음한 구지뽕잎차에서는 뽕잎처럼 매끄럽지는 않고, 날것 같이 거칠었다. 어릴 적에 맡았던 소죽 끓일 때의 구수한 풀향이 떠올랐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뽕잎차의 건향은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났다. 시음에서는 녹차 맛이 나고, 조금 지나면서 머리에 미세한 통증이 있고, 무릎에서 다리까지 당기는 경험을 하였다. 구지뽕잎차에서는 매운 냄새가 나고, 맛은 미역 맛이 나면서 뒷골과 관자놀이가 아파왔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뽕잎차 건향은 바다에서 나는 김 맛이 났다. 특별한 맛이나 반응은 없었고, 부드러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다.

다른 소음인은 뽕잎차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시음에서는 구수한 맛이 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 목 넘김이 좋았다. 특별한 거부반응은 없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❷ 명상법의 종류 上

▶ 한줄 요약
하루 15분씩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호흡명상이 갖는 장점을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명상법이든 꾸준함이 중요



명상 후 마무리는 어떻게

명상 후의 마무리 작업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상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던 의식을 점차 주변으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보통 눈을 감고 앉거나 천천히 특정한 동적을 취하면서 고요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맥박이나 혈압 등도 모두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상이 끝났다며 갑자기 일어서거나 빠르게 움직인다면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고, 발 저림 등으로 인하여 몸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의식 역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움직이면서 한 자세나 한 동작을 취함으로써 굳어 있던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을 마치려고 생각했으면, 먼저 명상을 하던 자세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손발을 움직여 본 후, 마치 손발 끝으로 무언가 나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편안하게 늘어뜨려 둡니다. 이렇게 하면 명상 중일 때의 이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눈은 가장 나중에 뜨는 편이 좋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면 순간적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명상을 통해 고요하고 평온해졌던 마음상태가 급격히 산만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나 목, 어깨 등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눈을 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적 명상이 무엇인가요

정적 명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상은 대부분 정적 명상입니다. 본래 불교에서는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이 모두 수행이 아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있는 것, 즉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요소가 모두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좌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마타, 위빠사나, 간화선과 같은 명상법이 정적 명상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관상법 역시 정적 명상이고, 가만히 앉아 염불을 하거나 만트라를 되뇌는 행위 역시 정적 명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것을 동적 명상이라고 합니다. 절을 하거나, 탑을 돌거나, 태극권과 같은 기공체조를 하면서 명상을 접목시킨 것. 요가를 하면서 몸의 느낌이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등이 모두 동적 명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동적 명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행선' 혹은 '경행'이라고도 부르는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좌선을 하다가 일어서서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적 명상, 동적 명상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명상의 특징을 통해 구분지어 왔던 것입니다.

호흡명상이란 무엇인가요

호흡명상이란 바로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자신의 호흡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짧은지, 긴지, 거친지, 헐떡이는지 등.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호흡 패턴과 리듬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새로운 경험일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난 체험일 수 있습니다. 호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호흡에 관심을 기울여보길 권합니다. 호흡명상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①신체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로 하여 앉기.
②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호흡을 그저 알아차리기.
③호흡에 번호를 붙여 헤아리기.
④들숨과 날숨 때 느껴지는 감각에 관심 갖기.

처음엔 ①번과 ②번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먼저 어깨와 가슴 부위와 허리에서 느껴지는 긴장상태를 잘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는 만큼 긴장된 부위가 이완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방석을 엉덩이 부위에 걸치도록 하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얹어 놓고 앉는 반가부좌나 두 발을 모두 내려놓고 앉는 평좌를 한 다음, 허리를 자연스럽게 세웁니다. 이때 허리에 너무 힘을 주어 요추부위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면, 이제 어떤 의도도 개입시키지 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때 너무 긴장하거나 애쓰게 되면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멍하게 바라보면 금방 딴 생각을 하거나 졸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터질 것 같은 풍선을 쥘 때, 너무 힘을 주면 터지고 너무 힘을 빼면 놓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적당한 긴장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호흡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딴 생각이나 졸음에 빠지지 않으면서 호흡을 주시하여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반복합니다.

> **움직임 따라 정적 · 동적 구분**
> **가장 기본적인 수행 호흡명상**
> **리듬 지키며 졸음 빠지지 않게**
> **노력하며 익숙해지는 게 우선**

그리고 난 뒤, ③번과 ④번을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③번을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들숨과 날숨을 하나에서 열까지 사이에서 적절한 숫자를 정해 헤아립니다. 그리고 호흡을 주시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④번은 인중부위 혹은 배의 감각을 주시하여 호흡과 함께 현재하는 느낌을 세밀하게 느껴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명상을 위해서는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루 15분씩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호흡명상이 갖는 장점을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애명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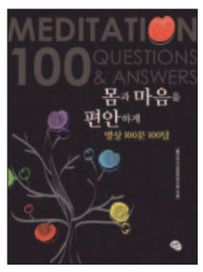
자애명상의 기원은 불교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하는 명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 가지 덕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는 자애, 즉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명상법이고, '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능력을 키우는 명상법이며, 마지막으로 '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명상법입니다. 이 가운데 자애명상은 바로 '자' 명상을 말합니다. 숫타니파타라고 하는 불교경전에 자애경이란 작은 경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전하는 명상의 방법을 간략하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분노와 증오의 생각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지키려고 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慈)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위로, 아래로, 횡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서 있거나, 가고 있거나, 앉은 상태이거나, 누워 있거나, 그가 잠에서 떠난 상태에 있는 한, 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기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마치 만트라를 외우듯이, 혹은 경전을 읽듯이 지속적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면부지의 사람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서 시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충분해지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잘 진행되고 충분해지면 무관한 사람으로 확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느낌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떠올리는 느낌은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행복감을 찾아보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충만된 느낌을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어떤 판단이나 조건이 없이 그저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행복감으로 충만해짐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님, 형제, 친구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입니다.

자애명상을 시작하기에 부적절한 대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강한 애증을 수반하는 이성이나 죽은 사람, 혹은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자애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을 보다 더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며, 나아가 나를 둘러싼 가족이나 친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을 계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등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5 호 현대불교
2023년 10월 18일(음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쉬는것도 없고 망상이 일어나는것도 없는걸 알아야 한다

공부에 진전이 없어 답답합니다

질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금생에 이 마음을 꼭 깨치고 가야겠다고 서원하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염불하시는 데도 내 마음이, 한마음이 즉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독성이고 산신이고 용왕이고, 이렇게 일체가 내 한마음에 들었다고 돼 있죠? 그 한마음에서 그 이름이 나가는 거고 한마음에서 씀씀이가 다 가락대로 차원대로 나가죠. 왜 내가 이런 소릴 하냐 하면, 여러분은 말로만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지장이고, 이 마음에, 그 한마음에 다 들었다는데, 뭐.'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가 부처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부처다.' 하는 그 마음만 알고 이론만 알고 있지 진짜 행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공부를 빨리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아상을 놔 버려야 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하고, 또는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고, 도의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자만이나 아만을 부리지 말고, 착을 놔야 하고, 욕심을 놔야 하고,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악한 것은 내 마음으로 안아서,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물방울이 아주 악인이라고 합시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 물 그릇에 넣어서 같은 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이름에 속한다고 볼진대 그렇게 넣어서 안아서 녹여 주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는 대로 여기 넣어서 안아 주고, 또 가난이 있으면 내 가난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안아서 나를 만들어서 다시 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안을 때, 참 그것은 즐겁고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는 밉고 곱고, 너는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을 따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살들이 될 수 있는 100%를 가지고 있고 99%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다 될 수 있어도 이 행을, 그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내가 물건을 다 잃었다' 고 울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물건을 써서 내가 그 물건으로, 물질로 그 사람한테 갚았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받지도 못하고 그럴 거를 울고불고해서 몸까지 집까지 망가뜨리고, 살림까지 망가뜨리고, 식구까지 다 파산을 시키고, 그런 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율도 지키려는 생각을 억지로 낸다면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렇게 행을 해 가지고 나가신다면 그대로 천 가지 만 가지 이 세상의 계율과 질서를 다 지키면서 모순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여여하게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아마 이름 없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처가 되려고 애를 써도 그 행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에다 놓고 갈 때는, 아주 빡빡하고 마르고 척박한 땅에 물을 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노골노골해지지 않습니까. 돌도 골라 내고 다 이렇게 행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러지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놓을 때에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긴데,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그 굴리는 것은 운전수에 달려 있다.



그림 · 최주현

이리로 가는 것도 저리로 가는 것도 운전수에 달려 있으니 안 되는 거 되는 것을 다 거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몰라서 못 쓰는 것도 너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운전해 간다면,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간다면 벌써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감각이나 지각이 발효가 돼서 벌써 오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닌 내 마음이 아주 밝게 맑아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죠, 두뇌로.

그러면서 내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져요. 내가 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달라집니다. 전부 바뀌져요. 이상하게 바뀌지죠. 그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익어 가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편리하고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 너무도 착하고 어질고, 행을 너무도 참 정확하게 밝게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대로 이익을 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간호를 해 주면서 항상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아픔같이 생각해 줘서 건져 주시고, 또 어떠한 악한 자를 보면 악한 자도 항상 이 물컵에 물 한 방울 넣듯이 내 마음으로 안아서 항상 착한 사람 되게 이롭게 해 주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그랬답니다. 착한 사람도 고정되지 않고 또 악한 사람도 고정됨이 없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또 바보라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병신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한 찰나예요, 그것도 돌아가는 게. 그러니 잘나고 도도하고 위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찰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혜보살은 아주 모든 것을, 인간에게 어떤 꽃 한 송이도 돌 하나도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스승이 연등으로 화하시고 나중에는 그 연등부처님으로 하여금 석가세존이라는, 석가모니를 증명해 주셨고, 오늘날까지도 그 석가모니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이름은 아마도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밝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서 삿갓 쓰고 주장자 들고 바리때 하나 들었으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족하지 대장부 살림살이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오고 가면서도 그 선혜보살처럼, 그렇게 석가모니가 되시기 이전에 그렇게 하신 그 노력으로, 그것만 노력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 바친 그 뜻을 볼 때 머리를 풀어서 땅이 질다고 깔아 드리질 않았나, 옷을 벗어서 질다고 깔아 드리질 않았나, 그것도 모자라서 몸뚱이까지 거기에 엎드려서 그걸 딛고 가시게 한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이 지극했나. 그 행도, 마음의 그 도리도, 그 뜻도, 그래 여북하면 이름을 선혜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그 행을, 지금 여기 다니시면서도 "아이구,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

☞ 22면으로 계속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진리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시고 그러한 말이 들리걸랑은 그저 거기 맡기시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것이 또 오래 갈 것도 아니니 달라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말 여러분은 진짜 부처님이 되시고 관세음이 되실 겁니다.

분별심을 쉬어야 한다는데

질문 마음공부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분별 망상이 올라오니 공부하는 불자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분별심을 쉬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공부를 지어 가야 할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은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분별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거름이 되기도 하고 진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마음에 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생각나는 건 모두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생각대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을 건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건져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져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도 벗어질 수가 없어서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이 그대로 보살행으로 여여하게 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미신의 짓을 하면서 행을 똑바로 못 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질서도 정연하고, 계율도 일체 다 지킬 수 있고,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말도 법으로서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의와 의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권을 얻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바다를 가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젖는 것이 있죠? 그 물은 얼음도 될 수 있고 다시 물도 될 수 있고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자 진리이자 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으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파도가 일면 아휴, 또 망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선이 되시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든 것을 놓는 데서 나도 없고 분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을 놓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를 놓지 못한다면 일체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망상이고, 보는 대로 망상이 쉰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없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건 뭐며 망상이 가라앉는 건 뭡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고도 없고 멸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건데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마시고, 남의 소리 듣고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난 게 태초요, 내 몸뚱이가 난 것이 바로 화두요, 그리고 내 몸뚱이가 난 것이 진리요, 상대와 모든 일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같이 들리는 거, 그거를 실천궁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고집한다면 언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심법행이라고 알고 불심을 바로 무심종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심법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열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로따로 분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생을 하시고 병고에 휘달리고 부적을 벼개 안에다 넣고 온통 붙이고 자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는 것입니다.

화두가 잘 들리려면

질문 누구한테 화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이 뭣고' 화두를 들고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화두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화두가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몽땅 놓지 않으면 그 길에 들지 못합니다. 놔야, 거기에서 미지수의 세계에 스스로 의정 나는 게 있는 거지 아니, 번연히 알고 있는 것도, 이 뭣고? 사람이지 뭡니까. 이 뭣고? 물건이지 뭡니까. 아니, 아는 걸 돌리려니까, 의정을 내려니까 이게 의정이 진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도대체 의정이 나니까, 모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알잖습니까. 과학적으로나 생물적으로나 동물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모든 게, 의학적으로나 모두 잘 아니까 이거는 전부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의정을 내려면 내지나요?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스스로 홀연히 의정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의정이 날 때, 그때 의정을 내지 말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들어가서 '넌 알지? 진짜 너는 알지? 주인 너는 알지?' 하고선 딱 홀연히 나를 내가 깊은 속에서 끌어내 가지고서 그때 같이 동시에 둘이 아니게, 하나로서 둘이 아니게 돼 가지고서, 그때에 돌면서 진짜 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미지수의 세계를 돌면서 그때 진짜 손 아닌 손이 아니 닿는 데가 없고, 발 아닌 발이 길 아닌 길을 아니 닿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한 발로 디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의정이 절로 나는 거지 어쩌자고 글쎄, 요기서 빤히 아는 놈의 걸 의정을 냅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의정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고 듣고 움죽거리게 하는 소소영영한 그 성품의 주인 너석이 있는 거를 분명코 알았다면 '이 뭣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만큼 우리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전체가 참선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두고 우리는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화두를 쥔다 이런다면, 아니, 내가 태어난 게 화두고 태초인데 거기다가 또 더 붙인다면 언제 어느 명년에 그 종 문서는 다 태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하기 싫고 우울해요

질문 요즘은 말도 하기 싫고 마음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성 강의도 들어보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관하는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답변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오장육부 안에 악업 선업이 뭉쳐서 중생들이 돼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니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그 참나라는 중심의 참자기는 더하고 덜함도 없으며 당당하며 꿋꿋한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업 선업이 자꾸 농락을 해서 그것을 뒤집어쓰고 맞고 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꿈을 조금만 잘못 꿔도 '아이구, 오늘 뭐가 잘못되려나 보다.'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도 '아이구!' 하고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 자체의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아, 그걸 조금만 돌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지.' 아, 이러면 금방 돌아갈 거를, 그거를 노상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날더러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말하기도 싫고 이러한 병과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왜 그걸 내게 말을 합니까, 예? 일체의 운전수는 당신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서 당신 앞에 닥치는 대로 운전을 잘하고 가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묻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스님은 다 놓으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랍니까?" 이런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도반들끼리 모이면 문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리만큼 신랄하게, 법을 구하는 데는 서로 문답을 청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데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데서 바로 체로 걸러서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리가 터지는 수가 많고 지혜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저런 건 저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음파를 내가 집어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내 말의 음파를 듣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쪽에서 말을 했으면 그쪽에서 먹고, 그쪽에서 말을 했으면 이쪽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도 없이 통신이 됩니다. 무전통신이 왔다 갔다 하죠? 물이 없으면 전력이 없죠? 이 모두가 묘법입니다. 이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거를 먹어 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먹어 버렸다면 그냥 무(無)죠?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끄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이 말을 하지 말랬는데, 그냥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일러 주신 거와 같이 찰나의 생활이 길이며, 너 나가 있는 생활이 바로 이 진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너 나가 한 사이 없고, 뜬구름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금방 말했으면서도 금방 먹어치워 없애 버리고, 물질은 변질돼 가도 뿌리는 영원하듯이. 우리는 이 뿌리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과 직결돼 있다는 요거 한 마디라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거기에 종합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선지식이나 그런 분들은 풀섶을 지날 때는 짚신에다가 방울을 달고서 뇌성벽력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그냥 드문드문 팔자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건 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죠. 걸음을 드문드문 걸었던 까닭은 바로 이 마음을 항상 무겁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항상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을 무겁게 두고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내 보면 아시겠지만 풍청풍청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펄떡펄떡 뛰면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일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또는 길을 걸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내가 자재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문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2세, 3세의 나를, 길을 인도하는, 또 뿌리에 물을 주는 그러한 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운전수를 믿고, 운전수가 바로 마음이라면 마음이 있기 이전 바로 그 기름,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쳐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기름을, 항상 서로 주면서 자기 속에서 내면의 자기 주인공만을 믿고 거기 놓으십시오.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공부 길이 탁 트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고 가면서
삿갓 쓰고 주장자 들고 바리때 하나 들었으면,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족하지
대장부 살림살이 아,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 현불논단 |

‘지금 여기’, 불자 위한 최우선 명제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불교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왜’ 부처되는 길 걸으셨는지 살펴야
이 질문, 삶의 전환점 제공하고 있어

부처님, 괴로움 만드는 현실 직시하고
그 굴레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현실 떠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

현실 직시하고, 괴로움 조건 회피 않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가르치다 보니,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질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잘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듯하다. 혹은 그것에 답변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당황하지 않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많은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 있겠지만, 필자는 불교의 출발점을 보자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것인지, 좀 더 훌륭한 수행자, 훌륭한 불자가 될 것인지 고민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핀다. 하지만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리 활발한 것 같지 않다.

필자는 그 지점 곧 ‘왜’ 부처가 되는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의 출발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왜’ 부처가 되는 길을 걸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부처로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제공한다. 이 질문은 다시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못견뎌 하셨기에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셨던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거기에서 태자 싯다르타가 부닥쳐야 했던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많은 답변-경전 안의 가르침들은 그것이 약육강식의 현실, 신분과 계급에 따른 삶의 불평등 등에 있음을 알려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당신이 부닥쳐야 했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실의 조건, 곧 괴로움의 굴레를 벗겨내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당신이 부닥쳤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굴레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관념적 답변에 몰두하지도, 관념적인 답변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다. 어쩌면, 아니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맞서는 현실주의자로서의 태도로 일관하셨다.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에도, 삶을 구속하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실의 조건들이 있다. 우리가 불교, 부처님이 갔던 길을 좇아가는 불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현실의 괴로움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다양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양한 현실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라는 한마디로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

현실의 다양한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직면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품에 의지하여 냉큼 도망가는 회피로는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부닥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만들어낸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 조건들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 ‘현실’이라는 지점을 떠난 곳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이 제시한 길을 따랐던 수많은 큰스님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렀다. “지금, 여기에서”라고.

교리의 해석이나 교리의 명칭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건들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라는 단호한 명제는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자비(慈悲)는 다른 사람을 크게 온전히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연민의 마음이 더해진 마음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남을 찬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 평온하고 행복한 자기 마음에서 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절과 찬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번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찬탄을 해 주세요. 작은 친절, 찬탄하는 말 한마디, 선한 행위 하나가 하루를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찬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면 잎은 가지를 의지하고, 가지는 줄기와 뿌리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가 나무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잎사귀는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잎사귀들의 광합성 작용으로 가지와 줄기, 뿌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자기를 무한대로 키워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백 배, 천 배, 만 배 늘어나게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모든 사람과 일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많은 사람은 거두어들일 것도 많아집니다.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평소 남을 돕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 속 깊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해 주는 것이 하루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보를 받았다면 손을 흔들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하루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보다는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라는 아량이 넓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넓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자비의 꽃을 활짝 피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에 부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에 불교동아리가 창립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7일 경내 문수법당에서 ‘영산대 불교동아리 1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이룬 첫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에는 64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지도법사로는 덕현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창립에는 덕현 스님의 공로가 컸다. 전법위원으로 위촉된 덕현 스님은 곧장 영산대 불자 교수를 찾아 면담을 했고, 동아리 창립 절차에 들어갔다. 9월 개학 이후에는 영산대 교내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부착하며 홍보를 시작했다. 학생들과 만나기 위해 직접 간식을 들고 교내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동아리 창립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또한 영산대 불자 교수들의 도움과 양산불교사암연합회의 포교기금 300만원 지원도 창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앞으로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매월 1회 정기 법회 및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법회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춰 차담 및 명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는 양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도 해당되는 명제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라는 ‘동기부여’는 지도법사의 ‘발심’으로 이어졌고, 불자 교수와 지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영산대 학생 64명이 귀중한 불연(佛緣)을 맺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목표로 한 ‘1교구 1대학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길 기대한다.

유인촌 장관, 진우 스님 당부 잊지 말길

한국 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유인촌 장관이 임명됐다. 유 장관은 첫 일정으로 10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기실 유 장관은 불교계에는 낯선 인물이 아니다. 15년 전 故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이런 이유로 불교계와 직·간접적인 인연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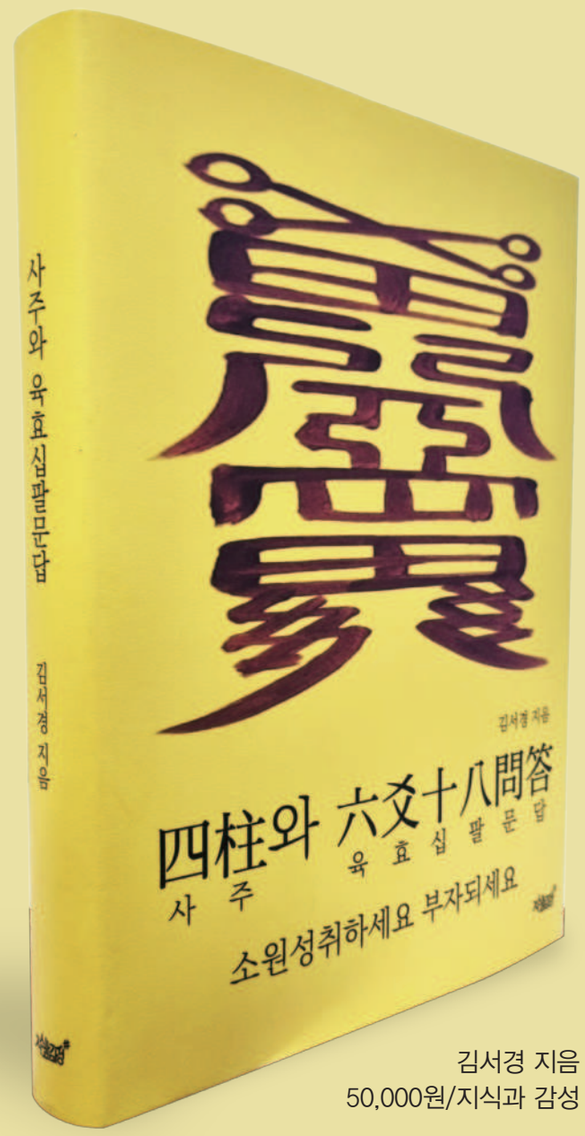
하지만, 이 인연이 좋게만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을 이유로 종교편향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면서 종교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2010년에는 대구기독교연합회 목사들과의 면담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 “호텔” 등을 운운하며 정부 지원사업비를 불교계가 마구 쓰고 있는 것처럼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으며, 유 장관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비공개로 면담하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2011년 제44대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12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거치며 쌓은 여러 부침과 경험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좋은 거름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종교를 떠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진우 스님의 당부도 잘 새겨주길 바란다.

최근 한국은 팝, 드라마, 영화 등에서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불교 등 전통문화가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강국이 돼야 함을 유 장관은 잊지 않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 8017-1010 ⓕ 8017-1011



김서경 지음
50,000원/지식과 감성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우는 지름길

四柱와 六爻十八問答
사 주 육 효 십 팔 문 답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 사주와 육효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암기 사항만 암기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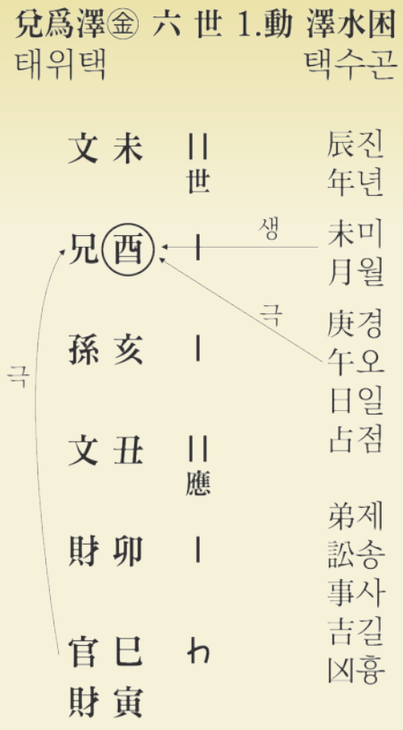
○ 사주는 120개, 육효 십팔문답은 12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효는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승진, 합격, 매매, 송사, 재물운, 사업운, 혼인점, 택일, 이사, 개업방향, 이사방향, 한해의 길흉월과 한달의 길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어떤 물음에도 용신을 정하여 길흉을 해명하여 문복자의 고민과 근심, 궁금함을 풀어줍니다.

○ 육효는 용신을 표시하여 용신의 상생과 상극 그리고 용신 원신 기신 구신 진신 퇴신 복신 비신 비복신 팔법을 사선으로 표시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면서 읽으시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자가 임상실험 하고 누누이 경험한 바탕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한번 맞추어 보세요. 신기하여 더욱 더 연구하여 동양 제일의 역학자가 될 것입니다.

兌爲澤㊎ 六 世 1.動 澤水困
태위택 택수곤



– 육효 해설 예시문(38p)

단왈 이 괘는 동생의 송사 사건으로서 형제는 형(兄)이 용신이다. 오효유금(五爻酉金) 형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미토(月建未土)에 생을 받아 길하고 일진오화(日辰午火)에 극을 받아 불리하다. 연이나 불행히도 초효사화(初爻巳火) 기신(忌神)이 동(動)하여 변효인목(變爻寅木)에 회두생(回頭生)을 받아 기신사화(忌神巳火)가 왕(旺)하여 일진오화(日辰午火)와 합세하여 용신유금(用神酉金)을 극하여 대흉지상(大凶之象)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 위험하나 답 왈(答曰) 금년은 진년(辰年)이 되어 용신유금(用神酉金)과 진유(辰酉)로 생합(生合)하여 무방(無妨)하고 내년(來年) 사년(巳年)에 불리하다고 하였더니 과연 사년묘월(巳年卯月)에 구속되었다. 응(應) 사년(巳年)은 초효(初爻) 사화기신(巳火忌神)과 일진오화(日辰午火)와 합세하여 이삼중으로 용신유금(用神酉金)을 극하고 묘월(卯月)은 용신유금 이 묘유(卯酉) 충(沖)으로 월파(月破)가 된 탓이다.

風天小畜㊍ 一 世 6.動 水天需
풍천소축 수천수



– 육효 해설 예시문(39p)

단왈 이 괘는 자손이 어려움에서 어느 때 벗어날 것인가를 문의한 점인데 자손은 손(孫)이 용신(用神)이라. 오효사화(五爻巳火) 손(孫)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해수(月建亥水)가 충(沖)하여 월파(月破)를 당하여 불리하고 일진인목(日辰寅木)에 생을 받아 길하다. 연인데 육효묘목(六爻卯木) 원신(原神)이 동(動)하여 용신사화(用神巳火)를 생하고 있어 이는 이생일파(二生一破)가 되어 용신(用神)이 왕하여 성사가 되므로 어려움에서 곧 풀릴 것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인가 답 왈 금년(今年)은 묘년(卯年)이니 사년(巳年)에 회복(回復)할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사년(巳年)에 대획리(大獲利)하였다. 응(應) 사년(巳年)은 용신사화(用神巳火)가 월파(月破)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년(巳年)은 파(破)를 메우는 년(年)이기 때문이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2p, 383p)

58년(음) 3월 7일 사(巳)시 남자

乙	壬	丙	戊
巳	申	辰	戌

54	44	34	24	14	4
壬	辛	庚	己	戊	丁
戌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는 임수일주(壬水日柱)가 춘계 진월(春季辰月)에 출생하여 실시(失時)하고 진중무토(辰中戊土)와 을목(乙木)이 투출(透出)하여 어느 오행(五行)으로 격(格)을 잡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날짜상으로 보아 진중(辰中)에는 을목(乙木)이 사령(司令)하므로 시상을목(時上乙木) 상관(傷官)으로 격(格)을 잡는다. 그러므로 상관격(傷官格)이며 사주에 재살(財殺)이 태왕(太旺)하다. 다행히 임수일주는 자좌신금(自坐申金)에 장생(長生)하여 종(從)하지 않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금인수(金印綬)가 용신(用神)이며 수비견겁(水比肩劫)은 희신(喜神)이 된다. 이 사주는 남자(男子)의 사주로서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국제상사(國際商社)에 근무(勤務)하다가 44세 신유대운(申酉大運)이 잘 들어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높은 직위(職位)에 승진한 사주다.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
❷ 질병(疾病): 냉(冷), 신장(腎臟), 방광(膀胱), 치질(痔疾), 비색증(鼻塞症)
❸ 남녀성격: (남) 털털한 성격, 원만하다, 활발하다, 지혜롭다, 포용력, 만인의 신망, 고집 대단, 박력 있다, 영리하다, 일독십지, 처 덕 있다
(여) 남자 같은 시원한 성격, 새것을 좋아함, 영리하다, 부궁불미, 정부, 예능, 문학에 소질 있다, 친모봉양

◑ 세운 · 질병 · 남녀성격의 해설(歲運 · 疾病 · 男女性格의 解說)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원명사주(源命四柱)에 재살(財殺)이 왕(旺)한데 세운에서 재(財)나 관살운(官殺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손재수나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 수술, 자연 재앙**은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인목(寅木)은 일지신금(日支申金)과 인신충(寅申沖)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지충운(日支沖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수술이나 자연 재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주(日柱)를 극(剋)하는 운(運)이 들어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화가 많이 생긴다.**

❷ **질병(疾病)은 냉, 신장, 방광은 일주(日柱)에서 발생(發生)하며 ※치질, 비색증은 ※임수일주가 화토재살(火土財殺)이 왕(旺)하면 ※치질을 조심해야 하며 또는 비염, 코막힘, 축농증을 조심해야 한다.**

❸ **남녀성격은 일주(日柱)에서 발생(發生)한다.**



송암(松岩) 김서경(金抒徑)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 판매처 010-3341-4867 ■ 값 50,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예금주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